

동경대전의 간행지

# 인제의 동학과 동경대전 재조명



일시 2013. 11. 15(금) 오후 1:30

장소 인제 하늘내린센터 2층 다목적 공연장

주최 인제군

주관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동경대전의 간행지

# 인제의 동학과 동경대전 재조명



일시 2013. 11. 15(금) 오후 1:30

장소 인제 하늘내린센터 2층 다목적 공연장

주최 인제군

주관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 학술대회 일정 | Program

---

참가자 등록 및 안내		13:00~13:30
1부 개회식	사회   한성주 (강원대 연구교수)	13:30~13:50
	· 국민의례 · 개회사 · 축사	
2부 학술발표		13:50~16:00
〈기조강연〉 『동경대전』의 판본 고찰과 인제		13:50~14:20
	발표   윤석산(한양대 한국언어문학과 명예교수)	
〈주제발표 1〉 강원도의 동학 조직과 동경대전 간행		14:20~14:40
	발표   성주현(중앙대 연구교수)	
휴식		14:40~14:50
〈주제발표 2〉 강원도 동학농민혁명과 인제		14:50~15:10
	발표   엄찬호(강원대 HK연구교수)	
〈주제발표 3〉 강원 인제지역 동학포교와 유적지		15:10~15:30
	- 海月 崔時亨의 활동을 중심으로 - 발표   임호민(관동대학교 사학과 연구교수)	
〈주제발표 4〉 인제 "東經大全" 간행터 비정 및 정비 방안		15:30~15:50
	발표   유재춘(강원대 사학과 교수)	
휴식		15:50~16:00
3부 종합토론	사회   류승렬(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6:00~17:00
〈토론자〉	이형우(한양대학교 강사), 홍동현(대림대학교 강사) 홍성덕(전주대학교 교수), 이상균(강원도청 학예연구사) 심철기(연세대학교 강사)	
폐회		17:00



---

## 목 차 | Contents

---

### 기조강연

- 『동경대전』의 판본 고찰과 인제 ..... 7  
윤석산(한양대 한국언어문학과 명예교수)

### 주제발표

- 강원도의 동학 조직과 동경대전 간행 ..... 29  
성주현(중앙대 연구교수)
- 강원도 동학농민혁명과 인제 ..... 41  
엄찬호(강원대 HK 연구교수)
- 강원 인제지역 동학포교와 유적지 - 海月 崔時亨의 활동을 중심으로 - ..... 55  
임호민(관동대학교 사학과 연구교수)
- 인제 “東經大畧” 간행터 비정 및 정비 방안 ..... 69  
유재춘(강원대 사학과 교수)



# 『동경대전』의 판본 고찰과 인제

윤 석 산 (한양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 |                              |                           |
|------------------------------|---------------------------|
| 1. 글을 열며                     | 4. 인제판 간행 이후, 『동학 경전』의 간행 |
| 2. 『최선생문집도원기서』와 『도원기서』       | 5. 『동경대전』 판본 비교           |
| 3.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간행의 종교적 의미 | 6. 마무리                    |

## 1. 글을 열며

동학 교조 수운 최제우 선생이 조선조 조정에 피체가 되어 처형을 당한 이후, 조정은 동학의 뿌리를 뽑고자 중요 지도자들의 지명수배를 내렸다. 수운 선생으로부터 도통을 물려받은 해월 최시형 선생 역시 중요한 수배자의 한 사람으로 지명이 되었다. 따라서 해월 선생은 관의 추적을 피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어우러지는 경상도와 강원도, 충청도의 산간 지역으로 숨어들어간다.

이와 같이 관의 지목을 받던 기간, 해월 선생이 처음으로 안정된 자리를 잡고 지낸 곳이 경상북도 영양군에 자리한 일월산 깊은 산간마을인 용화동이다. 해월 선생은 이곳 용화동에서 1865년에서 1871년까지, 6 년여를 살았다. 그러나 영해에서 변란을 계획하던 이필제와 연계되면서 다시 관의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관의 추적을 피해 태백산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14일을 보낸 이후, 영월 상동리 직동이라는 산간마을로 숨어들어 박용걸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숨어 지내게 된다. 영월 직동에서 겨울을 낸 해월 선생은 직동을 찾아와 입도를 한 정선의 유인상 등의 도움으로 다시 교단을 일으키고자 노력을 하였다. 흩어진 교도들을 다시 모아들이는가 하면, 새롭게 포덕을 하여 강원도와 경상도, 충청도 일대로 그 교세를 넓혀가게 되었다. 이때가 1871년에서 1878년의 사이이다.

해월 선생은 강원도 일대와 충청도 일대, 그리고 경상도 일부 지역으로 그 교세를 넓혀가는 한편, 설법제, 구성제, 인등제 등의 제례를 정립하므로 종교적 의례를 확립해 나갔다. 그런가 하면, 개접(開接)을 통해 보다 확대된 조직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의례와 조직 강화를 해나가는 한편, 동학교단을 보다 내적으로 공고히 하는 데에 매우 긴

요한 동학역사 기록인 도적(道跡)과 스승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經典) 간행을 계획한다.

도적 및 경전의 간행은 처음 정선(旌善) 남면에 있는 방시학(房時學)의 집에서 기획이 되었고, 도적(道迹)에 해당되는 『도원기서(道源記書)』<sup>1)</sup>를 이곳 방시학의 집에서 필사본으로 간행을 하였다. 방시학의 집에 수단소(修單所)를 설치하고 도적인 『도원기서』를 기획, 실행하는 한편, 강원도 인제(麟蹄) 김현수(金顯洙)의 집에 간행소를 마련하고 『동경대전』 간행을 실행해 나간다.

이렇듯 기획된 『동경대전』은 1880년 6월 14일 100 여부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에는 봉고식(奉告式)을 치르고, 간행된 『동경대전』을 각처로 보냈다.<sup>2)</sup>

또한 이후 1년 후인 1881년 6월에 이르러 충청북도 단양(丹陽)에 있는 여규덕(呂圭德)의 집에 또 다른 간행소를 마련하고 『용담유사(龍潭遺詞)』를 목판으로 간행하였다.<sup>3)</sup> 즉 해월 선생은 1880년에 들어서서 강원도 정선(旌善), 인제(麟蹄), 그리고 충청도의 단양(丹陽) 등지에서 도적인 『도원기서』와 수운 선생의 문집인 『동경대전(東經大全)』, 그리고 『용담유사(龍潭遺詞)』 등을 순차적으로 간행하는 역사를 펼쳤다.

해월 선생이 중심이 되어 『동경대전』을 비롯한 경전의 발간에 관하여서도, 동학의 교도들이 경전을 소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아졌고, 또한 경전을 소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으며, 따라서 동학적 가치체계가 심화, 확장된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sup>4)</sup> 해월 선생이 깊고 깊은 산간마을로 숨어 들어가 도적을 간행하고 또 경전을 간행하므로, 도통을 물려받았음을 확고히 하게 되고, 나아가 동학의 적자(嫡子)로서 정통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동학 교단 내에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월 선생이 펼친 일련의 일들, 즉 도적을 간행하고 경전을 간행한 사실은 이와 같은 외양적인 사실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면, 곧 동학 교단을 보다 종교적으로 공고히 했으며, 나아가 교단 내적으로 체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해월 선생의 노력은 그가 이필제의 난으로 무너진 교단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종교적 수련에 주력했던 사실<sup>5)</sup>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궁

1) 이 책의 표지에는 『崔先生文集道源記書』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이를 줄여서 『道源記書』라고 표기한다. 이에 관한 논의는 뒤에서 해나가고자 한다.

2) 『해월선생문집』, ‘刊出大全 百餘卷 頒布各處’

3) 『천도교회사』·「地統」, ‘六月에 神師이 大神師의 所著하신 歌詞를 發刊하사 道人에게 頒給하시니 是時 開刊所는 丹陽郡南面泉洞 呂圭德家러라.’

4) 오문환, 『사람이 하늘이다』(솔, 1996.) pp.122-123.

5) 해월 선생은 이필제의 난으로 교단 조직이 무너진 이후, 박용걸이나 유인상 등의 도움을 받아 태백산 적조암 등지에서 여덟 차례에 걸쳐 49일의 특별 수련을 감행한다. 이와 같은 수련의 감행은 곧 수련을 통한 신앙심의 확립, 나아가 신앙심의 확립을 통해 교단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길이었다고

극적으로 해월 선생은 1870년대에서 1880년대 초반이라는 10년간은, 수련을 통한 종교성의 강화, 의례의 정례화를 통해 종교적 의식 등을 다듬고 또 체제를 확립, 도적(道跡) 간행을 통한 정통성의 확립, 나아가 경전 간행을 통한 종교적 교의의 확립 및 위상 정립 등을 해 나간 시기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수운 선생 당시에 경상도 일대에 머물던 동학의 교단을, 19세기 중반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던 변혁의 물결을 타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이끌 수 있었고, 이들 종교적 기반을 바탕으로 교조신원운동, 갑오동학혁명 등의 거국적인 신앙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해월 선생의 이와 같은 노력은 해월 선생을 이은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 1861-1922)의 시대에 이르러, 동학이 ‘천도교’라는 종교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본 글에서 해월 선생이 강원도 인제에서 처음으로 간행한 목판본 『동경대전』이 지닌 의의를 찾고, 이어서 인제판 『동경대전』 이후 판각되어 출간된 『동경대전』의 판본들을 비교 검토해나가고자 한다.

## 2. 『최선생문집도원기서』와 『도원기서』

해월 선생이 스승인 수운 선생이 관에 체포되어 처형을 당하고 난 이후 가장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다름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보존하고 또 세상에 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스승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므로 그 가르침이 세상에 바르지 못하게 전해질 것을 해월 선생은 가장 두려워했었다.<sup>6)</sup> 스승의 가르침이 와전된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왜곡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이단(異端)의 일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월 선생은 스스로 “내가 잠자고 꿈꾸는 사이인들 어찌 선생의 남기신 가르침을 잊어버리겠는가?”<sup>7)</sup> 라고 슬회하고 있다. 즉 스승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세상에 전하는 일이 바로 후천(後天)의 세상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월 선생은 영양 용화동에 들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얻게 되는 1865년에 이르러, 이내 수운 선생의 가르침의 글들을 구송(口誦)을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받아쓰게 했었

판단된다.

6) 『癸未仲春版 東經大全』·「跋文」, ‘昔大神師著一經 以詔後世 當時門弟親炙者 隨聞節記 或不無異同錯謬 惟我海月先師 懼夫愈久而愈夫真也 乃命劂’

7) 『海月神師法說』·「其他」, ‘余夢寐間 先生遺訓忘却’

다.<sup>8)</sup> 또한 해월 선생은 관의 추적을 받아 산간 오지를 전전한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한 시도 보따리를 놓지 않고 짊어지고 다녔기 때문에 세간으로부터 ‘최보따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해월 선생이 한 시도 놓치지 않고 짊어지고 다녔다는 보따리 속에는 바로 스승의 가르침을 담은 글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해월 선생은 스승의 참형으로 풍비박산이 났고, 그 이후 이필제의 난으로 다시금 위기를 맞게 된 동학교단을 수습하고 일으키기 위하여, 종교적 수행인 특별 기도를 통하여 종교적 내면을 다지는 한편, 의례를 정례화하였고, 또 동학의 정신에 따라 이를 규범화하므로 종교적 외형을 구축해 나갔다. 그런가 하면, 도적(道跡) 간행을 통해 도의 근원을 밝히고 도맥(道脈)의 정통성을 확립하였으며, 경전 간행을 통한 종교적 교의를 확립해 나갔던 것이다.

이렇듯 해월 선생은 1872년 이후 10여 년의 기간 동안 교단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수행’과 ‘의례’ 등을 행하고 또 구축하였고, 이어서 ‘경전과 도적(道跡)’을 간행하므로 교단으로서의 체제와 조직을 강화시켜나가는 한편, 동학을 종교적인 면에서 그 면모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갔던 것이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방시학(房時學)의 집에서 발간한 『도원기서』는 동학의 역사를 최초로 기록했다는 점<sup>9)</sup>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 책은 도(道)의 연원(淵源)이 수운 선생에게서 시작되어 해월 선생에게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큰 근간으로 하고 있다.

『도원기서』의 표지명은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이다. 그러나 이 책에는 표지에 명기된 바와 같은, ‘최선생문집(崔先生文集)’이 뜻하는 수운 선생의 문집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도의 연원과 역사만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어찌 보면 완성된 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즉 문집 부분이 아직 이곳에 실리지 않은 채 미완으로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수운 선생의 문집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이다. 또한 『도원기서』가 간행된 연대는 모든 기록에 1879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에는 1880년의 기사도 함께 실려 있어, 그 혼선을 빚고 있다. 즉 1880년 6월 강원도 인제 김현수의 집에서 수운 선생의 문집을 간행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sup>10)</sup> 이때 말하고 있는 수운 선생의 문집은 『동경대전』 하나만을 지칭한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곧 도적(道跡)과 문집(文集) 모두를

8) 『天道教會史』·「地統」

9) 『道源記書』가 최초의 동학기록인가에 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水雲行錄』이라는 기록이 이보다 앞선 1865년경에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표영삼, 「수운대신사의 생애」, 『한국사상』 20집, 1985. 95쪽)

10) 『道源記書』, 「五月初九日 設爲刻板所而十一日 爲始開刊 至於六月十四日 畢爲印出 十五日別爲設 祭其時表功別錄記文」

포함하는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를 간행하기 위한 처음의 계획이 어떠한 사정에서인지 변경이 되었고, 『도원기서』라는 도의 연원(淵源)을 기록한 한 권의 역사서가 별도로 간행되었고, 이어서 『동경대전』, 『용담유사』라는 수운 선생의 가르침을 담은 두 권의 문집이 별도로 판각되어 간행이 된 것이라고 풀이해 볼 수가 있다.

앞에서 잠시 논의한 바와 같이, 해월 선생은 교단의 공고함을 위하여 먼저 49일 특별 기도라는 종교적인 수행(修行)과 인등제(引燈祭), 구성제(九星祭) 등의 종교적 의례(儀禮)를 정례화한 이후, 동학의 바른 역사 기록과 수운 선생의 유훈(遺訓)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한 『최선생문집도원기서』를 기획하였다. 이와 같은 근거는 다음의 기록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기 있다.

아아, 선생의 문집(文集) 침재(鎔梓)를 경영한 지 한 해가 지나 이미 오래구나! 지금 경진년(庚辰年)에 나와 강시원, 전시황 및 여러 사람들이 장차 간판(刊板)을 경영하려고 발론(發論)을 하니 각 접중(接中)이 다행히도 나의 의론과 같아 각소(刻所)를 인제(麟蹄) 갑둔리(甲遁里)에 정하게 되었다.<sup>11)</sup>

『도원기서』 중에 나오고 있는 이 글은 해월 선생이 경진년(庚辰年, 1880년) 『동경대전(東經大全)』을 발간한 사실을 쓴 기사로, 그 쓰여진 해는 1880년이다.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보아 『동경대전』을 출간하기 위하여 침재(鎔梓), 곧 판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인 1879년부터였었다. 즉 위의 기록에 따르면, 『도원기서』를 기획하고 또 간행한 시기와 같은 시기인 1879년에 이미 『동경대전』을 간행하기 위하여 침재(鎔梓)를 시작했었다. 이렇듯 같은 시기에 도적(道跡)인 『도원기서』와 수운 선생의 문집인 『동경대전』은 기획이 되었고 또 착수가 되었다. 따라서 해월 선생의 처음 생각은 말 그대로 ‘최선생문집(崔先生文集)’과 ‘도원기서(道源記書)’를 아우르는 작업, 곧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를 같이 기획하고 또 간행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도적(道跡)을 기록한 『도원기서』에는 아직 발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깊이 감추어두기 위하여 별도로 필사본(筆寫本) 한 부만 간행했던 것<sup>12)</sup> 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래의 계획이었던 ‘최선생문집도원기서’는 변경이 되어, 『도원기서』와 『최선생문집』 등, 별개의 두 종류의 책으로 나뉘어져 하나는 필사로, 또 하나는 목판으로 간행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11) 『도원기서』, ‘於戲 先生文集 鎔梓之營 歲已久矣 今於庚辰 余與姜時元全時眺 反詣益將營刊板 而發論各接中 幸同余議 而刻所定 于麟蹄甲遁里’

12) 『도원기서』는 오직 한 부만 筆寫로 간행이 되었다. 이 한 권이 유시현에게 맡겨졌고, 유시현에게 맡겨진 필사본을 金演局이 가지고 갔다. 그러한 것을 全世仁이 1908년 김연국이 천도교에서 분립하여 나간 상제교가 있는 계룡산에 찾아가 필사를 해 온 것이 한 부 더 있다. 이 전세인 필사본은 유시현의 후손이 현재 보관하고 있다.

### 3.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간행의 종교적 의미

1879년에 이르러 해월 선생에 의하여 기획이 된 ‘최선생문집’은 1880년 6월 인제에서 간행되었다. 이때 부쳐진 표제(表題)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아직 경진판(庚辰板)이 발견이 되지를 앓았기 때문이다.<sup>13)</sup> 다만 앞에서 인용한 『도원기서』의 기록에 의하면, “아, 아 선생의 문집(文集) 침재(鋟梓)를 경영한지...”<sup>14)</sup> 등의 기록으로 보아, 수운 선생의 글들이 아직 동학교단에서 ‘경전’이라는 인식보다는 ‘문집’으로서의 인식이 앞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렇듯 발간이 되면서 ‘최선생문집(崔先生文集)’은 ‘동경대전(東經大全)’ 또는 ‘성경대전(聖經大全)’ 등으로는 그 표제가 바뀐다.<sup>15)</sup> 즉 이 시기에 이르러 다만 ‘문집(文集)’이라는 이름에서 ‘경전(經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다.

동양에서 본래 ‘경(經)’은 ‘성인지언경야(聖人之言經也)’라 하여 ‘성인(聖人)의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예사롭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본다면, 수운 선생의 글을 다만 ‘문집’이 아니라, ‘동경대전’이니, ‘성경대전’이니 하며 ‘경전(經典)’이라는 명칭으로 명명했던 사실은, 곧 해월 선생 등 동학의 교도들이 수운 선생을 성인(聖人)으로 추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렇듯 처음 제자들에 의하여 기획이 될 때에는 그 이름이 ‘최선생문집’이었는데, 이가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되면서 ‘성경대전’, 또는 ‘동경대전’의 이름으로 출간이 되었다는 것은 실상 많은 시사점을 지닌다.

위 부분에 잠시 인용된 『도원기서』 중의 기록인, 해월 선생이 오랜 숙원인 스승의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판각하여 1880년 6월 14일 간행을 하고, 이내 이어서 15일에 봉고식(奉告式)을 하면서 읽은 별공록(別功錄)에는 “아아 선생의 문집(文集)을 간행하려한 지도...”라고, 그냥 ‘문집(文集)’이라고만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sup>16)</sup> 그러나

13) 그러나 최근 간지를 알 수 없는 목판본 『동경대전』이 발견이 되었다. 이 새로 발견된 목판본이 『동경대전』 경진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하여서는 줄고,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에 관하여」, 『동학학보』 20호, 2010. 12. 동학학회.) 참조

14) 『道源記書』, ‘先生文集鋟梓之營...’

15) 현재 1880년에 인제에서 간행된 『東經大全』인 庚辰板이 발견이 되지를 앓아 그 표제가 정확하게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도, 그보다 3년 후인 1883년 봄에 간행된 癸未仲春板이 최근 발견이 되었는데, 그 표제 역시 ‘東經大全’으로 되어 있다. 또 1883년 여름(癸未仲夏板)에 간행된 판본에도 ‘東經大全’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규장각 官沒文書에 癸未仲春板의 필사본이 전하고 있는데, 그 표제는 ‘聖經大全’으로 되어 있다. 또한 1892년에 간행된 표제에도 ‘聖經大全’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보아 1890년대에 이르러 동학교단에서 ‘東經大全’을 ‘聖經大全’이라고 부른 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6) 『도원기서』 중에 나오고 있는 別功錄이 지금은 발견이 되지 않은 『동경대전』 庚辰板의 跋文과 유사하지 않을까 추정된다.

해월 선생이 직접 쓴 것으로 되어 있는 계미(癸未, 1883년) 중춘판(仲春版)<sup>17)</sup>과 중하판(仲夏版)의 모든 『동경대전』의 발문(跋文)에는 ‘문집’이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고, 대신 “...이로써 무극(無極)의 경편(經篇)을 편찬하였다...”<sup>18)</sup> 라고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즉 수운 선생이 남긴 글들을 ‘성인(聖人)이 지은 글’이라는 뜻의 ‘경편(經篇)’이라고 표기했다.

이렇듯 해월 선생에 의하여 수운 선생의 여러 글들이 모아졌고 또 일책(一冊)으로 간행이 되면서, 수운 선생의 글들은 ‘경편(經篇)’으로, 또 수운 선생의 문집(文集)은 ‘경전(經典)’으로 불리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이 ‘최선생문집(崔先生文集)’이 ‘동경대전(東經大全)’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은 이후, 동학 교단의 어느 기록에서도 ‘문집(文集)’이라는 표현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즉 해월 선생은 동학의 경전을 간행하면서, 스승의 ‘문집(文集)’을 ‘무극(無極)의 경편(經篇)’, 곧 ‘경전(經典)’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이다.

물론 동학 교단 내에서 해월 선생이 이와 같이 ‘경전’으로 자리매김하여 부르기 그 이전에도 수운 선생의 글을 경편(經篇)으로 생각하고 또 불렀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수운 선생의 글을 동학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경편(經篇)’, 또는 ‘경전(經典)’으로 부르고 인식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해월 선생의 이와 같은 경전 발간과 함께였음이 분명하다. 1880년에 인제에서 행한, 해월 선생의 경전 발간은 동학교단으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문자화하므로 공식화했다는 의미와 함께, 스승의 가르침을 경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듯 해월 선생에 의하여 수운 선생의 가르침이 ‘경전(經典)’으로서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동학이 하나의 가르침, 즉 한 종교로서 보다 분명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조선조 사회를 유지시켜 왔던 유학, 또는 당시 새로운 힘으로 들어오고 있던 서학과는 다른, 그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가르침으로서 동학을 분명하게 확립시키는 일이 된다.

따라서 해월 선생에 의하여 도의 연원인 ‘도적(道跡)’이 기획 간행되었고, 또 수운 선생의 문집이 ‘경전’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되어 간행이 되었다는 사실은 동학 교단의

17) 『東經大全 癸未仲春版』이 최근 발견이 되었다. 이 판본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김중석이라는 사람이다. 발견한 시기는 2005년도로 天安地域에서 동학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발견했다고 한다. 발견할 당시 이를 공개하고자 하였으나 소장자 金燦龍(燦龍은 號로 어력집)의 반대로 공개되지 못하다가, 최근 공개를 하게 되었다. 김찬암이라는 사람은 해방 후에도 충청도 지의 天追牧 책임자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발견자의 이야기는 이 판본을 혼자만이 아는 곳에 숨겨두고 아들도 질질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한다. 최근 이 판본은 천안지역 향토사학자인 임영순씨가 국가보훈위원회에 기증하였다. 기증 시기는 2009년 6월경일 것이다.

18) 『동경대전 계미중춘판』·「跋文」, 또는 『동경대전 계미중하판』·「跋文」, 「以著無極之經篇」

로 보아 매우 뜻 깊고 의의 있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해월 선생이 행한 일련의 일들은 동학이 다른 가르침과는 다른 매우 독자적인 가르침을 지닌 종교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했던, 그러한 ‘종교적 의미’를 공고히 하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이곳 인제 갑둔리에서 행한 『동경대전』 간행은 동학교단으로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중대한 일이라고 하겠다.

#### 4. 인제판 간행 이후, 『동학 경전』의 간행

1880년대는 동학교단에 있어 여러 의미로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이 기간 해월 선생의 주관으로 ‘동학의 경전’이 지속적으로 발간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경진년(庚辰版, 1880년)과 신사년(辛巳年, 1881년)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각기 강원도 인제와 충청도 단양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이후, 불과 몇 년이 멀다하고 경전을 간행하는 역사를 펼친다.

경진년 6월에 인제에서 『동경대전』을 발간한 지 채 3년이 되지 못한 계미년(癸未年, 1883년) 2월에 충청도 목천(木川) 구내리(區內里) 김은경(金殷卿)이라는 제자의 집에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각각 100부씩을 간행한다.<sup>19)</sup> 이가 일컫는 바 계미중춘판(癸未仲春板)이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 여름에 경주에서 『동경대전 계미중하판』을 간행하고, 같은 해 가을에 『용담유사 계미중추판』을 간행한다.<sup>20)</sup> 불과 3년 사이에 동학교단은 인제, 단양, 목천, 경주 등지에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목판으로 간행하는 역사를 벌렸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5년 후인 무자년(戊子年, 1888년) 봄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간행을 한다. 이가 무자계춘판(戊子季春板)이다.<sup>21)</sup>

1880년대에 들어서서 동학교단에서 이렇듯 많이 경전을 발간한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이에서 몇 가지 특기할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첫째는 경진판이 발간이 된지 불과 3년이 되지 못해서 또 발간을 했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다. 둘째로는 같은

19) 『천도교회사 초고』를 비롯한 여러 기록에 계미년(1883) 2월에 간행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시천교역사』에는 임오년(1882)에 출간된 것으로 나온다. ‘임오판’과 ‘계미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이 모두 ‘목천 구내리 김은경의 집에서 간행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같은 판본을 『시천교역사』에서 잘못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20) 이들 계미중하판 『동경대전』과 계미중추판 『용담유사』는 동학·천도교의 어느 기록에도 간행 사실이 없는 판본이다. 이 판본들은 강원도 속초에 거주하고 있는 문용익(文龍翼)씨가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1969년 천도교 중앙총부에 의하여 입수되어 공개하므로 세상에 알려졌다.

21) 이 판본 역시 간행 사실이 동학·천도교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1978년 충남 아산군 염기면 송곡리에 거주하던 박명순(朴明淳)씨 소장본이 공개되면서 알려진 판본이다.

해에 두 번씩이나 봄과 여름에 걸쳐 경전을 발간했다는 사실이다. 셋째로는 발간된 장소가 강원도 인제, 충청도 목천, 단양, 경상도 경주 등 다양한 지역이라는 사실 등이다. 이렇듯 8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다섯 번의 역사를 펼치며, 가깝게는 같은 해에, 멀게는 5년 만에 여러 지역을 돌며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등 경전을 발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물론 이 시기에 이르러 많은 경전이 필요할 만큼 동학교도의 수가 늘어난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여러 지역을 돌며, 또 이렇듯 빈번하게 간행이 된 데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경진판이 발간이 되고 불과 만 3년이 되지 않아 발간이 된 계미중춘판과 무자계춘판의 발문을 보면, 이렇듯 빈번하게 발간이 된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먼저 계미중춘판의 「발문」을 보기로 하자.

아, 애 선생님께서 포덕을 하실 당시에 성덕(聖德)의 잘못이 있을 것을 염려하시어, 계해년에 이르러 친히 시형(時亨)과 더불어 항상 침재의 가르침이 있었다. 뜻은 있으나 이루지 못하다가, 그 다음 해인 갑자년의 불행한 일이 있은 후에, 세월은 침침하고 도는 미미해져 이로부터 18년이나 되었다. 경진년에 이르러 전날의 가르침을 지극히 생각하여 삼가 동지들과 더불어 논의를 하고 약조를 하여 기궤(劓劓)하는 공을 이루었다. 그러나 문(文)이 많이 빠진 탄식이 있는 까닭으로, 목천(木川)의 접중에서 찬연히 복간을 하여 이로써 무극의 경편을 펴내니, 이 어찌 선생님의 가르침을 흠모함이 아니겠는가. 감히 졸문으로 망녕되게 편의 끝에 글을 쓰노라. 계미년 중춘(仲春) 도주 월성 최시형 삼가 쓰다.<sup>22)</sup>

계미중춘판의 「발문」에 의하면, ‘경진년에 『동경대전』을 간행을 했는데, 글에 빠진 것이 많아서 다시 목천의 접중에서 복간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경진판을 낸지 불과 3년이 되지 않아 목천에서 복간을 하게 된 원인은 경진판에 빠진 글이 많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무자계춘판의 「발문」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 무자계춘판의 「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 애 선생님께서 포덕을 하실 그 당시에 성덕(聖德)의 잘못됨이 있을까 두려워, 계해년(癸亥年, 1863)에 이르러 친히 시형(時亨)과 더불어 침재(鎡梓)의 가르침이 있었다.

22) 『동경대전 계미중춘판』·「발문」, ‘於戲 先生布德當世 恐其聖德之有誤 及于癸未 親與時亨 常有鎡梓之教 有志未就 越明年甲子 不幸之後 歲沉道微 迨將十八年之久矣 至於庚申 極念前日之教命 謹與同志 發論詢約 以成劓劓之功矣 文多漏闕之歎 故自木川接中 燦然復刊 以著无極之經編 茲豈非慕先生之教耶 敢以拙文 妄錄于篇末 歲在癸未仲春 道主 月城 崔時亨 謹誌

뜻은 있으나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해가 지나 갑자년(甲子年, 1864)의 불행이 있게 되었고, 이후 세월은 오래되고 도는 미미하여 장차 18년의 오랜 시간이 지나, 경진년(庚辰年, 1880)에 이르러 시형이 전일의 가르침을 지극히 생각하여 동지들과 더불어 논의를 하고, 약조를 피해 새로 개간하였으나, 글에 혹 빠진 것이 있고 권(卷)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미루어 오다가 정해년 초겨울부터 무자년에 이르기까지 병내(秉齋)가 마음으로 항상 개탄하여 그 고루함을 잊고 삼가 여덟아홉 친구들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맹세하고, 힘을 다하여 기결의 공을 크게 이루어 두 질(秩)을 함께 진서(眞書)와 언문(諺文)으로 중간(重刊)하였다. 이로써 무극의 경편을 드러내니, 이 역시 우리 도의 행운이요, 집중의 큰일이다. 이 어찌 선생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또 모름지기 제자들의 원하는 바가 아니겠는가.<sup>23)</sup>

계미중춘판과 무자계춘판의 「발문」은 매우 유사하다. 다만 무자계춘판의 경우 경진판에 글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글에 혹 빠진 권이 있다.(書或有漏闕卷)”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글자 몇 자 정도가 빠진 것이 아니라, 경진판에는 글이 권(卷)으로 몽땅 빠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 완전한 판본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다시 복간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은 그 판본이 발견이 되지를 않아 밝히기는 어려워도 경진판에는 많은 부분이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된다.<sup>24)</sup> 경진판 다음으로 나온 계미중춘판과 3개월 후에 나온 계미

23) 『동경대전 무자계춘판』·「跋文」, ‘於戲 先生布德當世 恐其聖德之有誤 及于癸亥 親與時亨 常有鏡梓之教 有志未就 越明年甲子 先生不幸運否 歲久道微 迨將十八之久矣 至於庚辰 時亨極念前日之教命 謹與同志 發論詢約 新爲開刊 而書或有漏闕 卷不過幾許 然而彌留 自丁亥季冬 至於戊子 秉齋心尚慨歎 忘其孤陋 謹與八九諸益誓同 極力大成 剗劂之功 并以二秩 眞諺卽爲重刊 以著無極之經編 是亦吾道之一幸 接中之大事也 茲豈非慕先生之教而逢弟子之願哉’

24) 필자에 의하여 ‘경진판’으로 고증이 된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을 계미중춘판이나 계미중하판, 무자계춘판 등과 비교해 보면, 「유고음(流高吟)」, 「우음(偶吟)」 등 이외에 「탄도유심급」 중에서 ‘纔得一條路 步步涉險難 山外更見山 水外又逢水 幸渡水外水 僅越山外山 且到野廣處 始覺有大道’, ‘苦待春消息 春光終不來 非無春光好 不來卽非時 茲到當來節 不待自然來 春風吹去夜 萬木一時知’, ‘一日一花開 二日二花 三百六十日 三百六十開 一身皆是花 一家都是春’, ‘瓶中有仙酒 可活百萬人 釀出千年前 藏之備用處 無然一開封 臭散味亦薄 今我爲道者 守口如此瓶’ 이 부분이 빠져있고, 「화결시」 중에서도 ‘萬里白雪紛紛兮 千山歸鳥飛飛絕 東山欲登明明兮 西峰何事遮遮路’ 부분이 누락되었으며, 「영소」 중에서도 ‘風來有迹去無跡 月前顧後每是前 煙遮去路踏無跡 雲加峯上尺不高 山在人多不日仙 十爲皆丁未謂軍 月夜溪石去雲數 風庭花枝舞蝴蝶 人入旁(房)中風出外 舟行岸頭山來水 花扉自開春風來 竹籬輝疎秋月去 影沉綠水衣無濕 鏡對佳人語不知 勿水脫乘美利龍 問門犯虎那無樹 蓮花倒水魚爲蝶 月色入海雲亦地 杜鵑花笑杜鵑啼 鳳凰臺役鳳凰遊 白鷺渡江乘影去 皓月欲逝鞭雲飛 魚變成龍潭有魚 風導林虎故從風’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또 당시 동학의 의식을 기록한 ‘布德式 人有願入者 則先入者 傳道之時 正衣冠 禮以授之事 入道式 入道之時 或向東或向北 設位 致誠行祀 焚香 四拜 後以初入 呪文 敬以受之事 致祭式 入道後 致祭節次 設位四拜 後讀祝而卽誦降靈呪及本呪文 祭需式 設其醞酒餅麵魚物果種脯醢菜蔬 香燭 用之 而以肉種論之 則例用猪則或用 祭需之多少 隨其力行之也 先生布德之初 以牛羊猪肉 通用矣 至於癸亥八月 先生願予 傳道之日 此道兼儒佛仙三教之教 故不用肉種事’ 부분이 빠져 있다.

중하판을 비교해 보아도, 계미계하판에는 「유고음(流高吟)」<sup>25</sup>과 「우음(偶吟)」<sup>26</sup>이 실려 있지만, 계미중춘판에는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유고음」과 「우음」은 계미중하판보다 5년 늦게 발간이 된 무자계춘판에도 역시 실려 있다. 다시 말해서 경진판에서 누락된 글들을 계미중춘판에 찾아 싣고, 그 다음에 간행한 계미중하판과 무자중춘판에는 계미중춘판에서 누락되었던 글을 찾아 싣으므로 보완을 해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년의 차이를 두면서 계속적으로 경전을 발간한 것은 다름 아니라, 보다 완벽한 경전을 발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처음 경진년에 『동경대전』을 발간할 당시에 해월 선생을 비롯하여 이를 주관한 사람들에게 완벽한 원본들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해월 선생 등이 수소문을 하여 새로 찾은 경편들을 보완하여 계미중춘판, 계미중하판, 무자중춘판 등을 발간한 것이라고 하겠다.

계미중춘판과 무자계춘판 사이에 나온 것이 경주에서 발간을 했다는 계미중하판이다. 계미중춘판과 계미중하판은 그 발간 시기가 불과 3개월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3개월 만에 또 다시 『동경대전』을 중간한 것이다. 이렇듯 바쁜 기간에 『동경대전』을 다시 발간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계미중하판의 「발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아, 아! 선생께서 포덕하실 당시에 성덕이 잘못될 것을 두려워 하여, 계해년에 이르러 친히 시형과 더불어 항상 침재의 가르침이 있었다. 뜻은 있으나 시행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해를 넘겨 갑자년에 불행한 일을 당한 이후, 세월은 침전되고 도는 미미해져, 장차 이십여 년의 세월이 지나, 지난날의 가르침을 지극히 생각하여, 삼가 동지들과 더불어 논의를 일으키고 약조를 꾀하여 수년 전 동쪽 골자기와 목천에서부터 정성으로 출간을 한 바가 있다. 실로 경주에서 판각이 되어 이름을 얻은 것이 없으니, 이 역시 우리도 내의 흠과도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경주는 본래 선생님께서 도를 받으신 곳이고 또 포덕하신 곳이다. 그러므로 불가분 경주에서 간출하여 그 이름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호서 지역 공주 접 내로부터 논의가 일어나고 실시되어, 영남 지역의 동쪽 골자기와 더불어 아울러 힘써 출간하고자 무극의 경편을 편찬하였다. 삼가 두 세동지와 더불어 세상의 오해와 혐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모든 일을 제쳐 놓고, 맹세하여 한 가지로 지극히 힘을 드려, 목판으로 새기는 공을 크게 이루었으니, 이는 어찌 선생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제자의 원하는 바를 이룬 것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세 사람의 별록을 편의 왼편에 둔다. 계해년 한 여름 도주 월성 최시형 삼가 기록하다.<sup>27)</sup>

25) 高峰屹立 群山統率之像 流水不息 百川都會之意 明月虧滿 如節符之分合 黑雲騰空 似軍伍之嚴威 地納糞土 五穀之有餘 人修道德 百用之不紆

26) 風過雨過枝 風雨霜雪來 風雨霜雪過去後 一樹花發萬世春

계미중하판에는 계미중춘판에 신지를 못한 경편인 「유고음(流高吟)」과 「우음(偶吟)」을 실어 그 보완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경주가 본래 수운 선생이 도를 받은 곳이고 또 포덕을 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 경주에서 수운 선생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간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이에 작용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수년 전에 동쪽 골짜기’, 곧 강원도 인제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했고, 또 목천에서 간행을 하였으나, 경주가 바로 동학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기 때문에, 계미중춘판이 나온 지 불과 3개월뿐이 되지 않았지만 간행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계미중하판이 나오게 된 데에는 호서 지역의 공주 접과 영남 지역의 동쪽 골짜기에 있던 교도들이 힘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경주가 수운 선생과 특별한 인연을 지니고 있는 곳이니, 그 경전이 불가분 경주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 강원도에서도 나왔고, 또 충청도 목천에서도 나왔으니 영남과 호서 지역의 공주 접 등지에서도 경전 발간에 힘을 기우리는 것이 수운 선생의 제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 듯하다. 이렇듯 강원도 인제에서 비롯된 1880년대의 동학교단에서의 ‘경전 발간’은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발간이 되며 번져나갔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무자계춘판의 「발문」에 의하면, ‘병내(秉籙)’라는 사람이 주관이 되어 발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병내(秉籙)’라는 인물은 김병래(金秉籙)로, 자(字)는 광문(光文)으로 알려졌고, 수운 선생의 둘째아들인 세칭이의 처삼촌이 되는 사람이다. 세정이가 양양 감옥에 잡혀서 갇히게 되자, 해월 선생이 김병래가 사는 양구군 남면 무의매리로 찾아가 이들 가족을 모두 영춘(永春)으로 이거시킨다. 그러므로 동학에 입도를 한 사람이다. 이러한 김병래가 주관이 되어 인제의 여러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무자계춘판을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본다면, 강원도 인제, 충청도 목천, 단양, 경상도 경주 등, 여러 지역에서 동학의 경전이 발간이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한 지역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지속적으로 경전을 발간할 수가 없어 각 접에서 염출을 하여 지역을 달리해서 간행사업을 벌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가 하면, 경주가 동학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발간을 했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각 지역에서 매우 경쟁적으로 경전을 발간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관의 지목을 피해 산간마을을 전전하며 살면서도, 해월 선생의 지도를 받아 당시 동학교도들이 얼마나 높은 열망을 지녔고, 또 이 열망을

27) 『동경대전 계미중춘판』·「발문」, ‘於戲 先生布德當世 恐其聖德之有誤 及于癸未 親與時亨 常有鉅梓之教 有志未就 越明年甲子 不幸之後 歲沉道微 迨將十八年之久矣 至於庚申 極念前日之教命 謹與同志 發論詢約 數年前 自東峽與木川 雖是齊誠刊出 實無慶州之判刻 爲名 此亦似欠於道內 而惟我慶州 本先生受道之地 布德之所 則似不可不 以慶州刊出爲名 故自湖西公州接內 發論設施 與嶺南東峽 并力刊出 以著无極之經編 而謹與二三同志 不願世嫌 掃萬除百 誓同極力 大成之功 茲豈非慕先生之教 而遂弟子之願哉 特以三人別錄于篇左 歲在 癸未仲夏 道主 月城崔時亨 謹誌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동경대전』의 간행과 함께 『용담유사』 역시 신사년(1881년) 단양에서의 발간을 필두로, 계미년(1883년), 무자년(1888년) 등에 계속하여 발간하였다. 그러나 『용담유사』는 『동경대전』과는 다르게 누락된 편이 없이 가사 여덟 편이 처음부터 실려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발견된 『용담유사』를 보면, 모두 여덟 편의 가사로 되어 있음을 보아 이는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판본에 따라 그 표기가 다소 다르게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의 문제는 당시 한글 표기에 대한 정확한 표준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용담유사』가 간행이 되던 19세기가 바로 한글 표기에 있어 그 체계가 매우 문란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1880년대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동학의 경전으로 정착을 했던 중요한 시기였다. 여러 차례의 발간을 통하여 빠졌던 편들을 보완하는가 하면,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발간사업에 매진하므로 매우 활발하게 동학 경전 간행이 진행되었고, 그러므로 보다 완전한 판본으로 정착을 해 갔던 시기였다. 이는 바로 해월 선생이 스승인 수운 선생으로부터 계해년에 받은 침재(鎡梓)의 가르침을 실천한 역사(役事)요, 나아가 늘 수운 선생이 걱정하던 한울님의 성덕(聖德)을 바르게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1880년 인제에서 발간이 된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은 1880년대를 지나오면서 여러 판본으로 확대 간행되었고, 이들 1880년대에 간행이 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는 후대에 간행이 되는 모든 경전의 규범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학 제 종파의 가장 중요한 저본으로 자리하고 있다.

## 5. 『동경대전』 판본 비교

초기 동학교단에서 경진년(1880년) 인제에서 목판으로 『동경대전』을 간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간행을 해왔다. 따라서 오늘 발견되는 목판본과 목활자본은 대역섯 종이 된다. 아직 경진판은 발견이 되지를 않았고, 최근 필자에 의해서 ‘경진판’이라고 제기한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은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지 않는 한 경진판으로 확정을 할 수는 없다.<sup>28)</sup> 필자는 다만 그 가능성만을 제기했을 뿐이다.

이렇듯 초기 동학교단에서 간행된 목판본 내지 목활자본 『동경대전』은 그 체제에 있

28) ‘결정적인 단서’가 없다는 것은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에 간행 연대가 명기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내용에 있어 빠진 것이 있어 서로 차이를 지니고 있다. 필자가 경진판이라고 제기한 ‘새로 발견된 목판본’과 근년에 발견이 된 계미중춘판(1883년 봄) 『동경대전』, 그리고 계미중하판(1883년 여름) 『동경대전』, 무자계춘판(1888년 봄) 『동경대전』, 최근에 발견이 되었으나 아직 학계에는 보고가 되지 않은 신묘중춘판(1891년, 봄 목활자본) 『동경대전』과 임진판(1892년) 『동경대전』 등을 서로 비교하여, 제 판본에 대한 그 체제와 내용의 차이와 유사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각 판본의 체제에 대한 비교한 부분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새로 발견된 목판본	계미중춘판	계미중하판	무자계춘판	신묘중춘판	임진년판
포덕문	포덕문	포덕문	포덕문	포덕문	포덕문
동학문	논학문	논학문	논학문	논학문	논학문
수덕문	수덕문	수덕문	수덕문	수덕문	수덕문
불연기연	불연기연	불연기연	불연기연	불연기연	불연기연
탄도유심급	축 문	축 문	축 문	축 문	주 문
축 문	주 문	주 문	주 문	주 문	축 문
주 문	입춘시	입춘시	입춘시	강 시	절 구
강 시	절 구	절 구	절 구	입춘시	팔 절
좌 잡	강 시	강 시	강 시	절구 2수	결
팔 절	좌 잡	좌 잡	좌 잡	좌 잡	화결시
필 법	화결시	화결시	화결시	화결시	탄도유심급
화 결	탄도유심급	탄도유심급	탄도유심급	결	우 음
강 결	결	결	결	우 음	좌 잡
제 서	우 음	우 음	우 음	탄도유심급	영 소
시 부	팔 절	팔 절	팔 절	제 서	제 서
통 문	제 서	제 서	제 서	팔 절	입 춘
통 유	영 소	영 소	영 소절	영 소	필 법
	필 법	필 법	필 법	우 음. 2	통 문
	통 문	우고음	우고음	필 법	통 유
	통 유	우 음. 2	우 음. 2	우고음	
	의 식	통 문	통 문	통 문	
	발 문	통 유	통 유	통 유	
		의 식	의 식		
		발 문	발 문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에서부터 1892년 임진년에 발간한 『동경대전』까지 다섯 종의 목판본 『동경대전』과 한 종의 목활자본 『동경대전』의 체제를 표와 같이 비교해 본 결과 그 체제는 서로 대동소이함을 알 수가 있다.

즉 『동경대전』 중, 동학·천도교의 교의를 중점적으로 썼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 등 네 편은 어느 판본에서고 공통적으로 앞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편제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들 네 편이 『동경대전』의 중추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 발견된 목판본’에서만 「논학문」을 「동학론」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동학론」이라는 명칭은 초기 동학의 기록인 『도원기서』와 이 『도원기서』를 저본으로 삼아 수운 선생의 행적만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운행록』에서만 발견되는 이름이다. 따라서 「동학론」이라는 명칭은 초기 동학에서만 쓰였던 이름이며, 「논학문」의 다른 이름임을 알 수가 있다.

각 판본에 실려 있는 편수를 비교해 보면, 가장 적은 편수가 실려 있는 판본이 ‘새로 발견된 목판본’이고, 가장 많은 편수가 실려 있는 판본은 계미중하판과 무자계춘판이다. 목천에서 1883년 봄에 발간이 된 계미중춘판에는 「유고음」과 「우음. 2」<sup>29)</sup>가 실려 있지 않은데 비하여, 경주에서 1883년 여름에 발간된 계미중하판과 1888년 봄에 발간된 무자계춘판에는 이들 두 편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늦은 시기인 1892년에 발간이 된 임진판에는 「강시」, 「유고음」, 「우음. 2」, 「의식」, 「발문」 등이 실려 있지 않다.

계미중하판과 무자계춘판이 가장 많은 편수를 지니고 있고, ‘새로 발견된 목판본’, 그리고 임진판이 가장 적은 편수를 지니고 있다. ‘새로 발견된 목판본’은 어느 시기에 발간된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거론하기 어렵지만, 계미중하판이나 무자계춘판과 신묘중춘판, 임진판 등을 비교해 보면, 뒤에 나온 판본이 오히려 더 적은 편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경진판 이후 처음 나온 판본인 계미중춘판에서는 「유고음」, 「우음. 2」가 실려 있지 않은데 비하여, 이 판본보다 3개월 후에 나온 판본인 계미중하판과 또 5년 뒤에 나온 무자계춘판에는 이들 두 편이 실려 있다는 것은, 당시 동학교단의 지도부가 「유고음」, 「우음. 2」 등 두 편을 새로 발견했다거나, 이 두 편을 수운 선생의 시로 새롭게 인정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두 판본보다 늦게 발간이 된 임진판에는 이 두 편이 빠지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앞선 동학교단의 지도자들이 새

29) 「우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두 편이 있다. 계미중춘판과 계미중하판에 실려 있는 또 다른 「우음」은 ‘風過雨過枝 風雨霜雪來 風雨霜雪過去後 一樹花發萬世春’이라는 짧은 시이다. 같은 제목의 시가 두 편이라 편의상 「우음. 2」라고 이름했다.

로 발견했거나 새롭게 인정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편을 다시 신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임진판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부실한 면을 지니고 있다. 「화결시」의 후반부의 상당 부분과 「우음」의 후반부 상당 부분이 판각에서 누락이 되어 붓으로 써넣어 보충을 했다. 더구나 임진판은 간행이 되었다는 역사 기록도 없고, 발문도 없어 어디에서 어떠한 사람들에 의하여 발간이 되었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판본이다.

또한 새로 발견이 된 신묘중춘판은 그 표제가 ‘동경집대전(東經集大全)’으로 되어 있고, 또 새로 발견된 임진판은 ‘성경대전(聖經大全)’으로 되어 있다. 즉 그 표제에 있어 지금까지 발견된 『동경대전』의 표제와 다르게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각 판본들이 비록 적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편제에 있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함께, 내용에 있어서도 각 판본 별로 빠진 부분들이 있다. 특히 「탄도유심급」에 이려함이 심하게 나타난다. 계미중춘판 이후 무자계춘판까지 일관되게 「탄도유심급」의 후반에 실려 있는 시문(詩文)이 임진판에는 실려 있지 않고, 이 판본보다 1년 앞서 나온 신묘중춘판에는 이 시문이 「영소」의 끝부분에 첨부되어 있다.

「탄도유심급」 후반에 이어져 있는 시문은 모두 오언(五言)으로 되어 있는 시문인데, 그 내용상 네 편으로 나눌 수 있다.<sup>30)</sup> 또한 그 형식이나 내용이 「탄도유심급」과는 어느 의미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탄도유심급」은 그 문장이 한 주제로 일관하여 잘 짜여진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한 주제로 일관되게 짜여진 구성의 끝에 시문이 첨가되므로 과연 이 시문들을 「탄도유심급」의 연속되는 구절로 볼 수 있는가 많이 주저된다. 그러나 계미중춘판 이후 무자계춘판에 이르기까지 이들 시문들이 「탄도유심급」의 후반부에 이어져 있어, 마치 「탄도유심급」의 한 부분인 양 되어 있다. 따라서 신묘중춘판에서는 같은 시문(詩文)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영소」의 후미에 첨가하여 실었다가, 임진판에서는 제외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후 동학을 천도교로 대교천한하고 천도교단에서 처음 간행한 1907년도 활자본에는 이 시문 부분이 빠져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진행되면서 이 시문을 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경대전』은 판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편들이 편입되기도 하였고,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편입되었던 편들이 다시 빠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30) 첫째 편 ‘纔得一條路 步步涉險難 山外更見山 水外又逢水 幸渡水外水 僅越山外山 且到野廣處 始覺有大道’, 둘째 편 ‘苦待春消息 春光終不來 非無春光好 不來即非時 茲到當來節 不待自然來 春風吹去夜 萬木一時知’, 셋째 편 ‘一日一花開 二日二花開 三百六十日 三百六十開 一身皆是花 一家都是春’, 넷째 편 ‘瓶中有仙酒 可活百萬人 釀出千年前 藏之備用處 無然一開封 臭散味亦薄 今我爲道者 守口如此瓶’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모습은 바로 『동경대전』의 몇몇 편들이 과연 수운 선생의 글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동학 지도부에서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그러한 근거라고 하겠다.

## 6. 마무리

한 교단이 일정한 틀을 지니고 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이 확립되어야 하고, 이 신앙이 지닌 정신을 담은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의례가 확립이 되어야 하며, 창시자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이 확립되어야 한다. 해월 선생은 이필제의 난과 연루가 되어 풍비박산이 난 동학교단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1879년대 내내, 수련을 통한 신앙의 회복, 그리고 의례의 확립, 교조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 판각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왔다.

그러한 결과로 해월 선생 동학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태백산 적조암을 비롯하여 49일의 특별 수련을 여덟 차례나 감행하였고, 인등제, 구성제, 설법제 등을 제정하여 의례를 정제화하였다. 또한 스승인 수운 선생이 남긴 가르침의 글들을 모아 인제 갑둔리에서 한 권의 책으로 『동경대전』을 간행하는 역사를 펼쳤다.

이와 같은 면에서, 강원도 인제 갑둔리에서 『동경대전』 간행을 한 역사적 사실은 당시 동학이 한 교단으로서 정립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다. 또한 동학교단은 스승인 수운 선생의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내면서 단순한 ‘문집(文集)’ 아닌, ‘경전(經典)’으로서 그 의미를 격상시킨다. 이곳 인제 갑둔리는 최초의 『동경대전』 간행지이면서, 바로 ‘문집’을 동학교도들에게 ‘경전’으로 인식시킨 곳으로 그 의미를 지닌다.

수운 선생의 가르침이 ‘경전(經典)’으로서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동학이 하나의 가르침, 즉 한 종교로서 보다 분명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지금까지 조선조 사회를 유지시켜 왔던 유학, 또는 당시 새로운 힘으로 들어오고 있던 서학과는 다른, 그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가르침으로서 동학을 분명하게 확립시키는 일이 된다. 따라서 해월 선생이 이곳 인제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동학이 다른 가르침과는 변별될 수 있는 독자적인 가르침을 지닌 종단으로의 면모를 공고한 사건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이곳 인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동학의 교단은, 이후 이러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여 마침내는 한국근대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갑오동학혁명을 일으키는 그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 즉 강원도 인제는 어느 의미에서 1894년 갑

오동학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저력을 키울 수 있었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지역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동학교단은 인제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까이는 몇 개월, 멀게는 몇 년 사이로 『동경대전』을 간행하는 역사를 펼친다. 그것도 인제, 목천, 단양, 경주 등지로 자리를 옮겨가며 경전 간행이라는 대역사를 펼친다. 그러므로 1883년 간행된 재미중춘판을 비롯하여 1892년 간행된 임진판까지 다양한 『동경대전』이 오늘 전해지고 있다.

이들 『동경대전』 판본들 중에는 재미중춘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학 천도교의 역사 기록에는 없는 판본들이다. 특히 신묘중춘판과 임진판은 아직 학계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판본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현재 발견된 판본보다 더 많은 판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판본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그 체제는 서로 대동소이하다. 다만 후대로 가면서 편수가 늘어나고, 또는 그 목차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동경대전』의 기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 등 네 편의 중요한 글들은 앞부분에 자리하고 있고, 이어서 「주문」과 「축문」, 그리고 「시문」, 「통유」와 「통문」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동경대전』은 판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편들이 편입되기도 하였고,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편입되었던 편들이 다시 빠지기도 하였지만, 그 기본 체제는 늘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기본 체제는 바로 이곳 갑둔리에서 간행할 때 이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볼 때에, 1880년 인제 갑둔리에서 발간된 『동경대전』이 그 저본이 되어, 1880년대를 지나오면서 여러 판본으로 확대 간행되었고, 이들 1880년대에 간행이 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는 후대에 간행이 되는 모든 동학경전의 규범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동학 제 종파의 가장 중요한 저본으로 자리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인제 갑둔리는 최초로 『동경대전』을 간행한 지역으로서의 의의와 함께, 동학이 독자적 정체성을 지닌 교단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한 지역으로 그 의의를 지닌다. 동시에 동학 교단이 갑오동학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그러한 기틀을 마련한 지역이라고 하겠다. 또한 인제에서 간행된 『동경대전』은 이후 간행되는 모든 『동경대전』 판본의 중요한 저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 부)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에 관하여

필자는 지난 2010년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이 최초의 목판본인 경진판, 곧 인제판임을 제기한 바 있다. 『동경대전』 인제판을 기획 간행할 때 같이 기획이 되었던 『도원기서』의 기록과 계미중춘판 『동경대전』, 계미중하판 『동경대전』, 그리고 무자계춘판 『동경대전』 등에 나오는 「발문」 등을 분석하여,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이 인제판 『동경대전』일 가능성이 높음을 밝힌 바 있다.

마침 『동경대전』 최초의 간행지인 이곳 인제에서 열리는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를 할 기회가 되어 이에 관한 후속 연구 부분을 발표문 말미에 첨가하고자 한다.

『도원기서』 기록에 의하면, 인제판 『동경대전』 간행 시, 판각을 위해 글씨를 쓴 사람은 정선 사람인 전세인(全世仁)이다.<sup>31)</sup> 또한 전세인은 『도원기서』를 간행할 때에도 글씨를 쓴 서유사(書有司)로 활동을 했다.<sup>32)</sup>

방시학의 집에서 간행이 된 『도원기서』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진다. 그래서 당시 『도원기서』 발간 시에 주체적으로 활동을 한 유시현의 집에 숨겨졌고, 이 유시현의 집에 숨겨진 『도원기서』를 훔칠 구암 김연국이 가지고 갔다. 그러므로 『도원기서』는 김연국이 이끄는 상제교 본부에 소장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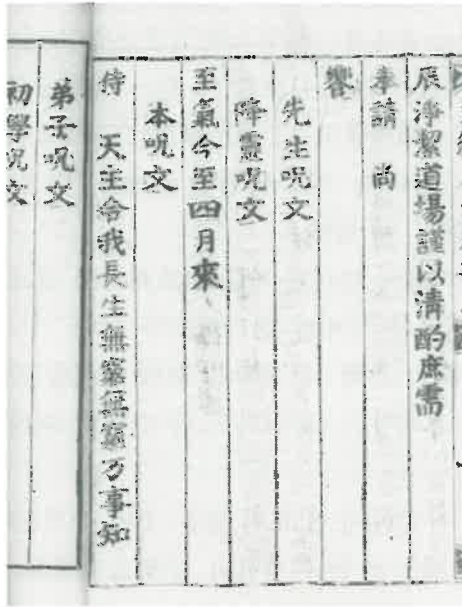
『동경대전』과 『도원기서』를 발간할 당시 서유사로 활동을 한 전세인이 1908년 상제교가 있는 계룡산을 찾아가 며칠을 묵으며, 필사하여 온 또 다른 한 권의 『도원기서』가 오늘 전하고 있다. 이 필사본은 유시현의 증손이 보관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제판 『동경대전』을 간행할 때 글씨를 쓴 전세인의 글씨를 1880년 발간된 『도원기서』와 1908년 필사된 『도원기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의 글씨와 『도원기서』 두 종의 글씨를 서로 비교해 보면, 이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이 인제판 『동경대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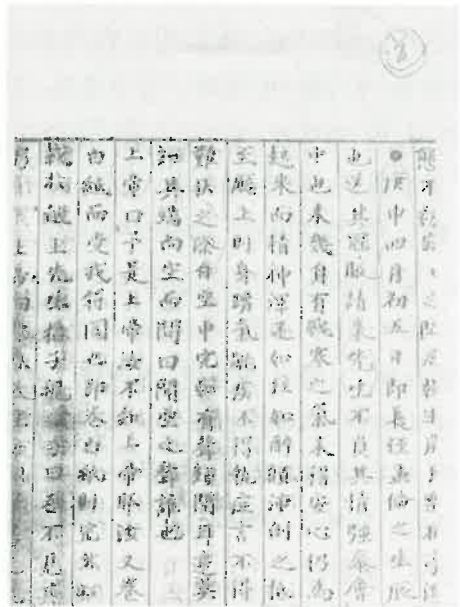
다음은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과 『도원기서』 두 본에 쓰인 글씨에 대한 비교이다.

31) 『도원기서』

32) 『도원기서』



새로 발견된 목판본(先生)



도원기서(先生)



새로 발견된 목판본(汝)



도원기서(汝)

其法賢士問我又勸布德曾藏不死之藥  
 弓乙其形口誦長生之呪三七其字開門  
 納容其數其然肆設法其味其如冠于  
 進退况若有三千之班童子拜拱倚然有  
 六七之味年高於我是亦子貢之禮歌咏  
 而舞豈非仲尼之蹈仁善禮智先聖之所  
 敬修心正氣惟我之要定一番致祭表  
 侍之重盟乃感罷去守誠之故也衣冠整  
 齊君子之行路食手後膳夫之事違家不

새로 발견된 목판본(修心正氣)

人之賢者何然開以未嘗不其其  
 或謂而或命而市能所待若以二十  
 字已而先生名其道曰天道又名曰東學  
 策乃無位不履之理而又先自然之理也  
 為之化也所修以教者一口會若一曰  
 此必善入如善不為則樂修正正氣去惡  
 為善物感自去不深他利不取存夫之也  
 不言人之道不食惡肉以信敬誠三字為  
 五也今今年十一月年然有欲程之詩思  
 其新入之進者則可謂說也說者出也  
 效不已西君子全羅道過火入星州拜謁

도원기서(修心正氣)

其道故吾亦有其然豈其然之疑不意四  
 月心寒身戰疾不得執症言不得難狀之  
 際痛何仙語應入耳中驚起換問則白勿  
 懼勿恐世久謂我上帝汝不知上帝  
 耶問其所然曰余亦無功故生汝世間教  
 人此法勿疑勿疑白然則西道以教太乎  
 自不然吾者靈符其名仙藥其形太極又  
 形弓受我此符濟人疾病受我咒文教

새로 발견된 목판본(然)

三不狂四不立不在六心平帝常謂道  
 曰曰反逆事所以為法若在一不在二不  
 之避法而後無得語云△先生謂道  
 曰自開開後世或有與上帝常謂道  
 樂與亦存所以浮言也世誠不然而如  
 浮言則此所以各理明也其故天  
 御理道性不復以玉為年然之須  
 我於此此外存存之聖德也然則古  
 謂今不問之事古不也論理比之法也  
 得世人之波道者謂我矣

도원기서(然)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의 글씨는 해서(楷書)로 쓰여서 목판에 판각되어 인쇄가 된 글씨이다. 따라서 매우 딱딱한 느낌이 있다. 그러나 『도원기서』의 글씨는 다소 행서(行書)의 기운이 보이고, 붓으로 직접 쓴 것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 이와 같은 면 때문에 두 본의 글씨가 서로 다른 듯이 보인다.

그러나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과 『도원기서』, 두 본에 쓰인 ‘같은 글씨’를 찾아 대조해 보면, 이 글씨들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 두 본의 글씨는 같은 사람의 글씨라고 추정이 된다. 즉 두 본 모두는 정선 사람 전세인의 글씨로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이 인제판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강원도의 동학 조직과 동경대전 간행

성 주 현 (중앙대 연구교수)

- |                     |                 |
|---------------------|-----------------|
| 1. 머리말              | 3. 사적과 동경대전의 간행 |
| 2. 동학의 포교 과정 조직의 확장 | 4. 맺음말          |

## 1. 머리말

강원도는 동학의 제2 고향이라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860년 4월 5일 경주에서 창도된 동학은 초기 경주를 중심으로 안동·영해·영양·청도·대구 등 경상북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포교되었다. 초기 경상도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포교되기 시작한 동학은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의 순도와 함께 강원도 지역에도 동학의 연원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1864년 3월 10일 수운 최제우는 대구장대에서 '평세사란 암지취당(平世思亂 暗地聚黨)'이라는 혐의<sup>1)</sup>와 사술(邪術)로 정학(正學)을 어지럽힌다는 '좌도난정(左道亂正)'의 죄목으로 대구장대에서 처형당하였다.<sup>2)</sup> 이에 앞서 최제우는 1863년 12월 조정에서 파견된 선전관 정운구(鄭雲龜)에 의해 그의 제자 10여 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당시 최제우와 함께 체포된 제자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정배에 처해졌는데, 이중 이경화(李慶化)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 영월로 귀양 온 이경화는 소밀원(蘇密院)의 장기서(張奇瑞)에게 처음으로 동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sup>3)</sup>

그렇지만 강원도 지역에 동학이 본격적으로 포교된 것은 수운 선생의 순도 이후 동학교단을 이끌던 해월 선생은 1871년 3월 10일 이필제의 강력한 권유로 영해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양자 최준이(崔俊伊) 등 다수의 희생자를 내고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해월 선생은 강원도 태백산령을 중심으로 은거하면서 비밀리에 포교를 하였다. 이후 1870년대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동학을 재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충청과 호남으로 포교가 이어

1) 『고종실록』 고종 즉위년 12월 21일조.

2) 『고종실록』 고종 1년 3월 2일조.

3) 『도원기서』, 경오년조.

지는 가교적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이 처음으로 강원도 인제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볼 때 강원도는 동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 공간적 의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동학 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연구 성과가 적지 않다.<sup>4)</sup>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강원도 지역의 동학 조직을 살펴보고 동경대전이 간행되는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동학의 포교 과정과 조직의 확장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학이 강원도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최제우의 순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한 조선 정부는 동학을 당연히 이단시 하였고, 1863년 12월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를 잡아들였다. 이때 수운 최제우의 제자 10여 명이 함께 체포되었다. 이들은 수운 순도 직후 여러 지방으로 정배를 당하였는데, 이경화는 강원도 영월 깊은 산골인 소밀원으로 정배되었다. 이를 계기로 강원도의 동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강원도의 동학이 이경화가 유배를 오면서 바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어느 정도 동학에 대한 탄압이 수그러지거나 이경화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계기로 동학이 포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강원도에 언제 포교되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1860년대 이미 동학이 강원도에 포교된 것은 이경화로부터 시작되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1869년 양양의 도인 최희경과 김경서 등이 해월 최시형을 머물고 있는 상주 동관음으로 찾아왔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입도한 지 오래되었으나 도 닦은 방법 즉 동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찾아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월 최시형은 이들과 일면식이 없었고 또한 처음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연원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해월 최시형이 그 연원을 캐어묻자 최희경과 김경서는 ‘공생’이라는 인물을 통해 동학에 입도하였다고 하였다.<sup>5)</sup> 즉 최희경과 김경서는 이미 오래전에 동학에

4) 박맹수, 「강원도지방의 동학비밀포교조직에 관한 연구」, 『춘천문화』 10, 춘천문화원, 1995 ; 박준승,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 ; 김병용, 「강원도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연구-강릉지방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최채숙, 「강원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일 고찰」,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엄찬호, 「강원도 동학의 전래와 농민혁명」, 『강원문화사연구』,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 이기원, 「강원지역 동학농민전쟁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원영환, 「강원도 동학과 동학혁명」, 『강원문화사연구』 5, 강원향토문화연구회, 2000 ; 한승봉, 「강원도 인제 지역 최시형의 행적과 동학 기념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입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생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이다. 공생은 『시천교역사』에 의하면 孔根錫<sup>6)</sup>으로 이경화가 유배되었던 영월 소밀원 출신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공생은 상주 동관음에 있던 수운 최제우의 아들 최세정을 소밀원으로 이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밀원에는 이경화로부터 동학에 입도한 장기서라는 인물이 있었다.<sup>7)</sup> 이로 볼 때 강원도에 동학이 포교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이경화가 영월 소밀원으로 유배되어 온 것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영서지역인 영월에서 영동지역의 양양으로까지 포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양에 동학을 포교한 인물은 장기서와 함께 이경화에게 입도한 공생이 아닐까 한다.<sup>8)</sup>

1869년 2월 최희경과 김경서의 입도를 계기로 해월 최시형은 이해 3월 박춘서와 함께 양양으로 가서 30여 호를 포교하였다.<sup>9)</sup> 뿐만 아니라 해월 최시형은 양양 산중에 은거하여 치성과 송주로 생활하였다.<sup>10)</sup> 이후 해월 최시형은 양양지역을 자주 왕래하면서 포교를 시작하였고, 이로써 홍천, 횡성, 원주, 정선 등 강원도 각지에서 동학이 전래되기 시작하였다.<sup>11)</sup>

또한 이 시기 최제우의 둘째 아들 세정이 양양에 머물고 있었는데, 동학을 포교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교인들이 사가를 돌보았음으로 볼 때 동학이 포교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세정은 1870년 10월 공생의 권유로 영월 소밀원으로 이거하였다. 이로 볼 때 당시 강원도의 경우 양양과 영월 소밀원이 동학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1871년 3월 10일 영해교조신원으로 해월 최시형은 사가가 있는 영월 소밀원으로 피신하였지만 사가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고 단양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해 5월 다시 영월로 돌아와 정진일, 박용걸의 집에서 기거하였다. 8월 이필제의 문경작변으로 동학의 탄압이 심해지자 해월 최시형은 영월 직동 뒷산으로 은신하였다가 소밀원 사가로 다시 갔지만 역시 문전박대를 당하고 영월 직동으로 돌아와 산중에 머물다가 박용걸의 집으로 되돌아왔다.<sup>12)</sup> 그리고 박용걸과 의형제를 맺는 한편 이곳에서 49일 기도를 봉행한

5) 『도원기서』, 기사년조.

6) 최류현, 『시천교역사』 하, 34쪽.

7) 『도원기서』, 경오년조.

8) 이는 당시 최제우의 아들 최세정이 양양에 머물고 있었는데, 공생이 와서 양양의 도인들이 영월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최세정이 이를 수용하여 영월 소밀원으로 이거하였다. 이로 볼 때 소밀원에서 이경화로부터 동학에 입도한 공생이 양양을 왕래하면서 동학을 포교한 것으로 본다.

9) 『도원기서』, 기사년조.

10)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제2편, 10~11쪽.

11) 엄찬호, 「강원도 동학의 전래와 농민항쟁」, 『강원문화사연구』 2,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121쪽.

후 교인들을 모아 강도회를 열고 대인접물 등을 설법하였다.<sup>13)</sup> 그러나 이러한 해월 최시형의 동향은 영월관아에 감지되어 체포될 위기에 처했지만 首吏 지달준<sup>14)</sup>의 도움으로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월 최시형은 심산유곡인 영월을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오랫동안 영월에 은신해있으면서 동학을 포교하였다.<sup>15)</sup>

1872년 1월 5일 박용결의 집에서 영해교조신원운동을 잘못 지도한 것을 뉘우치는 제례를 지냈다.<sup>16)</sup> 이는 많은 교인들을 희생시켰고 나아가 동학의 조직마저도 위기에 빠뜨리게 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된 지도력에 있음을 절실하게 느낀 것이다. 3월 25일에는 인제 출신의 김연국이 동학에 입도하였다.<sup>17)</sup> 이후 김연국은 강원도 지역의 중요한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4월 5일 영월 직동에서 창도기념 제례를 가진 후 해월 최시형은 강수와 함께 정선 무은담의 유인상의 집으로 으로 이거하였다.<sup>18)</sup> 무은담에서 다시 49일 기도를 마칠 무렵 정선 일대의 교인들이 해월 최시형을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신정언, 신치서, 홍문여, 유계홍, 최영하, 김해성, 방자일, 안순일, 최중섭, 박봉한 등이었는데, 이들은 유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동학을 재기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이외에도 박용결, 장기서, 김병래 등이 찾아왔다.<sup>19)</sup> 이로써 영해교조신원운동 이후 한동안 와해되었던 동학 조직의 재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인들의 출입이 잦아들어 관의 지목이 있을 염려가 있자 정선 갈래사의 말사인 적조암에서 10월 중순경 49일 기도를 시작하였다. 이는 관의 지목을 피하고 조직을 재건하기 위한 다짐이었다. 해월 최시형은 강수, 유인상, 전성문, 김해성 등과 함께 정선 함백산 적조암이라는 조그마한 암자에서 49일 기도를 마치고 雙句詩를 받았다.<sup>20)</sup> 적조암 기도 후 해월 최시형은 강원도를 벗어나 충북 단양 일대에 머물렀다. 해월 최시형이 단양으로 이거한 것은 적조암 노스님 철수좌가 권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해월 최시형뿐만 아니라 사가<sup>21)</sup>도 강원도 일대에서 은신생활을 꺾어야만 했다. 1863년 3월 10일 수운 최제우의 순도 이후 동학교단은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12) 『도원기서』, 신미년조. 이를 계기로 해월 최시형과 박용결은 의형제를 맺었다.

13) 『천도교창건사』 제2편, 14-18쪽.

14) 지달준은 박용결과 죽마고우이다.

15) 오지영, 『동학사』 제2장, 영창서관, 1938, 53쪽.

16) 『시천교역사』, 임신년조.

17) 『시천교역사』 (별책), 임신년조. 이 책은 『시천교역사』라고 표제가 되었지만 김연국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다.

18) 『도원기서』 임신년조.

19) 『해월선생문집』, 임신년조.

20) 『동학사』, 54-55쪽.

21) 사가(師家)는 수운 최제우 순도 이후 그 가족을 일컫는다.

수운 최제우에 이어 해월 최시형이 동학의 정통을 이어받았지만 일부에서는 사가를 여전히 추종하였다. 때문에 관에서는 해월 최시형뿐만 아니라 사가도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수운 최제우의 순도 이후 사가는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방황하였지만 단양 민사업의 집을 거쳐 정선 문두곡으로 거처를 옮겨 한 해를 보냈다.<sup>22)</sup> 당시 박씨 사모의 사가가 정선으로 온 것은 정선 교인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선지역에 동학 교인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75년 6월경 사가를 후원하던 민사업이 죽자 사가는 상주 동관음을 거쳐 해월 최시형이 있는 영양 용화동을 찾아왔다. 해월은 자신이 거처하던 곳을 내었다.

용화동에 머물던 사가는 양양 교인들의 후원으로 영월 소밀원으로 이거하였다.

경오년 10월 공생이라는 사람이 세정을 유혹하여 말하였다. 지금 양양의 도인들이 선생님의 집안을 모시고 영월로 옮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옮기게 되면 출입하고 서로 만나기가 좋고, 생계 역시 이곳보다 좋아질 것이니, 영월로 옮기심이 어떻습니까? 세정이 공생의 말을 듣고 소홀히 영월 소밀원으로 이거하였다.<sup>23)</sup>

즉 1870년 10월 사가는 양양 교인들의 후원으로 영양 용화동에서 강원도 영월 소밀원으로 이거하였다. 여기에는 공생의 역할이 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밀원은 이경화가 유배왔다가 처음으로 강원도에 동학을 포교한 곳이다. 뿐만 아니라 소밀원은 태백산 중이어서 인적도 거의 없었고 은신하기에도 적당한 곳이었다. 소밀원에는 공생뿐만 아니라 장기서 등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있었다. 이들의 후원으로 사가는 한동안 소밀원에서 생활하였다.

사가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영해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되었다. 해월 최시형은 관의 추적을 피해 일단 사가로 왔지만 관의 지목이 두려운 세정의 처는 해월 최시형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사가에는 박씨사모를 비롯하여 세청, 세정 형제들이 정선으로 출타 중이었다. 이필제의 문경작변 후 해월 최시형은 다시 소밀원 사가를 찾았다. 이때 박씨사모는 반갑게 맞았지만 세청·세정 형제는 여전히 냉랭하였다. 해월 최시형은 하는 수 없이 태백산 중으로 은신하였다. 사가에서 해월 최시형을 두 차례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여전히 관의 지목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1872년 6월 관의 지목을 피하지 못한 사가의 세정은 인제 기린면 장춘보의 집에 있다가 피체되어 양양관아로 이관되었다.<sup>24)</sup> 불안한 사가는 이듬해 1873년 1월 말경 영월 직

22) 『도원기서』, 계해년조.

23) 『도원기서』, 경오년조.

24) 『도원기서』, 임신년조.

동 박용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이해 5월 12일 세정은 양양관아에서 장살당 하였다. 그리고 함께 피체되었던 김덕중, 이일여, 최희경 등은 정배를 당하였다. 관의 지목이 여전히 심하자 강수는 유인상과 의논한 후 정선으로 거처를 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사가는 무은담 유인사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싸내로 옮겼다.

이곳에서 은신 하는 사가의 생활을 곤경 그대로였다. 이때 사가의 생활은 지극히 가난하고 궁색하여 농사짓는 일은 콩대만 남은 남산의 콩과 같고, 아침 저녁의 양식은 솔에 북쪽 마을의 곡식과 같다고 할 정도였다. 이처럼 궁벽하게 지내던 사가의 박씨 사모는 이해 12월 10일 끝내 죽음을 맞았다. 이듬해 1875년 1월 22일 사가의 세칭이 처가에 가려다가 병으로 장기서의 집에 머물러 치료를 하였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영해교조신원운동 이후 1872년 6월 강원도에 정착하였던 사가는 3년 동안 영월과 정선을 떠돌아다니다가 끝내 막을 내렸다. 이로써 한때 사가를 추종하였던 교인들은 해월 최시형을 중심으로 단일지도체제를 형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학 교단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적조암 49일 기도 이후 단양에 머물던 해월 최시형은 충청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교단의 중요한 제례는 대부분 강원도에서 가졌다. 이는 강원도가 당시 교호수가 가장 많았으며, 교단 각종 행사의 재정을 도맡았기 때문이었다.<sup>25)</sup> 이러한 관계로 1874년 2월 1일 박씨부인 장례식은 정선 싸내에서, 1875년 11월 설법제는 정선 무은담에서, 1876년 3월 설법제는 인제에서, 그리고 이듬해 1877년 10월 구성제는 정선 무은담에서 각각 지냈다. 이와 같은 강원도의 동학 조직과 자금력은 1882년 인제 갑둔리에서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을 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교인들은 도내 동학을 조직화뿐만 아니라 교단을 이끌어가는 재정을 사실상 담당하였다. 1875년 8월 보름 단일지도체제를 마련한 해월 최시형은 8월 보름 중견지도자들과 교단의 장래를 논의하였다. 이날 모임의 비용은 정선 교인들이 각출하였다. 또한 이해 10월에도 천제를 지냈는데, 이 역시 정선 교인들이 성출하였다. 『도원기서』에 의하면 정선 교인들이 2백금을 모았다고 하였다. 그 중 1백금은 두 번의 제례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백금은 새로운 접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자금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비용을 염출한 인물은 신석현, 최진섭, 홍석범, 홍석도, 전세우, 김원중, 김해성, 유계로, 최기동, 전두원, 김백인, 김문규 등이었다.<sup>26)</sup>

25) 삼암 표영삼에 의하면 당시 교단의 조직은 100여 호였으며, 이중 정선과 인제가 30여 호로 가장 많았고 양양, 영월, 단양이 각 10여 호, 청송이 5호 정도였다.(표영삼, 『동학』 2, 통나무, 2005, 74쪽)

26) 『도원기서』, 을해년조.

또한 11월 13일 정선 유시현의 집에서 설법제를 할 때도 정선 교인들이 그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이듬해 1876년 3월 10일 수운 최제우의 환원향례를 인제 점주 김계원의 집<sup>27)</sup>에서 행하였는데, 이 역시 인제 교인들이 마련하였다.<sup>28)</sup> 11월 13일 설법제를 마친 해월 최시형은 유인상을 도점주에 임명하였다.<sup>29)</sup>

이외에도 1877년 10월 3일의 구성제는 인제 교인 장춘보와 김치운이 담당하였다. 이어 16일의 구성제는 정선점주 유인상이 부담하였다.<sup>30)</sup> 특히 1879년 3월 인제의 교인들이 치제를 크게 지내기를 원하자 김치운의 집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7월 15일의 제례와 10월 28일의 수운 최제우의 탄신제, 11월 5일의 인등제 등도 정선 교인들의 정성으로 지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정선 교인의 정성에 해월 최시형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장하고 아름답도다. 정선 도인이여. 신미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작과 끝이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즉 선생의 도를 닦은 자 어찌 성덕의 운을 받지 않겠는가?

이를 통해 정선 교인들의 신앙심과 성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제례 등 각종 행사에는 강원도 지역의 교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정선과 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1878년 7월 25일 해월 최시형은 정선 무은담 유인상의 집에서 개접을 하였다. 개접은 교인들이 교의를 토론하는 모임으로, 당시 개접은 수운 최제우의 1863년 7월 파접한 이후 처음이었다. 개접을 하였다는 것은 교단의 조직이 안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접은 동학의 정통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즉 개접으로 해월 최시형은 보다 분명하게 정통성을 확립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강원도 지역의 동학 조직의 안정과 교인들의 후원은 동학의 최초의 경전인 <동경대전>을 간행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초기 동학 시기의 제례를 정착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27) 『시천교역사』에는 인제 남편 김연호의 집에서 봉행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해월선생문집』에는 인제 남편 김연국의 집에서 행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김연호는 김계원과 동일 인물이고 김연국과 함께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8) 『도원기서』, 병자년조.

29) 표영삼, 『동학』 2, 79쪽.

30) 『도원기서』, 정축년조.

### 3. 사적과 동경대전의 간행

영해교조신원운동 이후 동학의 활동무대가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옮겨진 후 동학교단은 보다 안정되었다. 더욱이 그동안 진행되었던 각종 제례와 구성제, 인등제 등을 통해 교세를 확장하는 한편 결속력도 강화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해월 최시형은 무엇보다도 경전과 동학 사적을 간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루어왔던 해월 최시형은 1879년 11월 10일 사적 간행을 위해 인등제를 지냈던 정선 방시학의 집에 수단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역할 분담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sup>31)</sup>

- 도포덕주 : 최시형
- 도차주 : 강시원
- 도접주 : 유시헌
- 수정유사 : 신시영
- 교정유사 : 신시일
- 도소주인 : 방시학
- 감유사 : 최기동 안교일
- 서유사 : 안교상
- 지유사 : 김원중
- 접유사 : 윤종현
- 수유사 : 홍시래 최창식
- 책자유사 : 신윤한 안교백
- 유통유사 : 홍석도 안교강

이처럼 역할 분담이 정해지자 11월 10일에는 강시원 등을 중심으로 사적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다. 편찬 작업은 2개월만인 이해 12월 말에 탈고하였다. 이 초고는 1880년 1월 정선 동면 전세인에 의해 정서되었고, 『최선생문집도원기서』라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었다. 이 책은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의 가계, 득도와 포교, 탄압과 조직화, 체포와 순도 경위, 그리고 해월 최시형의 입도와 포교활동, 영해교조신원운동, 조직의 재건, 의례 정립, 동경대전 간행 경위 등 동학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동학의 역사를 정리하게 된 배경과 심정을 차도주 강수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31) 『도원기서』, 기묘년조.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이 빨라서 기묘년 가을에 이르러 나와 주인(해월 최시형 : 필자주)이 선생님(수운 최제우 : 필자주)의 도원을 잇고자 하는 뜻이 있어 이에 선생님의 일과 자취를 수단한즉 두미가 착잡하고 전후가 문란하여 쓰되, 능히 붓을 범하지 못하여 혹 잘못할 단초가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먼 것을 궁구하여 잇고자 하였으나 이치가 기연에 가깝지 않고 근원을 탐색하여 근본됨을 캐고자 하였으나 불연에 같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 끝을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도로써 이를 말하고자 하였으나 이치가 묘연하여 측량할 수 없고, 덕으로써 이를 논하고자 하였으나 실로 빛에 밝음이 있었습니다. (중략) 오늘 수찬하여 기록하는 것은 감히 칭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시원의 박식천견이 또한 능히 본말시종의 근본을 가지런하게 못하였으니 더욱 이것이 그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략)<sup>32)</sup>

이에 의하면 동학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고민과 애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민과 애로로 인해 이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검토까지 하였다. 그 논란의 대상은 영해교조신원운동이었다. 영해교조신원운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되었다. 이에 결국 『최선생문집도원기서』는 공개하는 것을 유보하였다.<sup>33)</sup>

동학의 역사를 정리한 해월 최시형은 경전 간행을 서둘렀다. 이는 교인이 늘어감에 따라 경전을 찾는 경우가 점차 많아졌다. 그러나 해월 최시형이 경전 간행을 미룬 것은 무엇보다도 경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강원도를 중심으로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경비를 조달할 여유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에 해월 최시형은 1880년 4월 하순 중견지도자들과 협의하여 각 집에서 비용을 염출하기로 하였다. 이어 5월 9일 인제 남면 갑둔리 김현수의 집에 각판소를 설치하였다.<sup>34)</sup> 이어 5월 11일부터 개간 즉 간행 작업을 시작하여 거의 한 달만인 6월 14일 마쳤다. 다음날 15일에는 『동경대전』 간행을 알리는 즉 간행 기념식을 가졌다.<sup>35)</sup>

『동경대전』이 간행된 후 해월 최시형은 『동경대전』을 간행한 공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아아. 스승님의 문집을 간행하려 한 지도 오랜 세월이 되었다. 지금 경진년에 나와 강시원, 전시황 등 여러 사람들이 경전 간행을 하려고 발론을 하니, 각 접이 다행히 나

32) 『도원기서』 후서 1.

33) 『시천교역사』, 기묘년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미 탈고가 되어 간출해 기리 전하러 했으나 날인견봉하여 유시현이 간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천도교회사초고』에는 “脫稿됨에 급하여 捺封捺印하사 유시현에게 任置하도록 密囑하사 覽 此稿는 人眼에 輕快함이 不可라 하다”라고 하였다.

34) 『해월선생문집』, 경진년조.

35) 『도원기서』, 경진년조.

의 뜻에 찬동하여 각소를 인제 갑둔리에 정하였다. 일을 마치는 것이 뜻과 간아 비로소 편을 이루니 이로써 스승님의 도와 덕을 밝히게 되었다. 이 어찌 기쁘고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각 접에서 정성스러운 정성과 비용으로 쓰 제물을 낸 사람은 특별히 별록에 그 공을 논하여 차례로 기록한다.

『동경대전』을 간행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는데, 인제 교인들이 130금, 정선 교인들이 35민, 상주의 윤하성이 40금, 청송 교인들이 6민을 각각 후원하였다. 그리고 『동경대전』을 간행하는데 맡은 역할은 다음과 같다.

도청 : 최시형  
감역 : 강시원 전시황  
교정 : 심시정 전시봉 유시헌  
직일 : 장도형 김문수 장병규 이진경  
접유사 : 김정호 신시영 황맹기 조시철  
수유사 : 한봉진 홍시래 신시일 김진해 이정봉  
치판 : 김관호  
침자 : 심원우 최석하  
운량 : 장흥길 김인상 김효흥 이천길  
서유사 : 전세인  
공계 : 이귀록 강기영

『동경대전』을 간행하는데 총책임은 해월 최시형이었지만 실무를 관리한 인물은 강시원 즉 강수와 전시황이었다. 『동경대전』을 간행하는데 참여한 사람은 모두 30명이었으며, 부분 강원도 출신으로 인제와 정선에서 활동하였던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첫 경전인 경진판 『동경대전』은 1백 권을 간행하였다.

『동경대전』의 간행 경위는 해월 최시형의 구송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구송설과 피사되어 전래되어 오던 원본을 바탕으로 간행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리고 구송설과 원본설을 종합하여 산재되어 있는 기록과 원본, 또 구송되어 오던 것을 종합 정리하여 간행되었다는 절충설이 있다.<sup>36)</sup>

『동경대전』을 간행한 해월 최시형은 1861년 단양 남면 천동 여규덕의 집에서 가사체 경전인 『용담유사』를 간행하였다. 『용담유사』의 간행 비용도 김연호, 장춘보, 김치운, 이은보, 김현경, 장세원 등 인제지역 교인들이 담당하였다.<sup>37)</sup> 이후 동학의 경전인 『동

36) 박맹수, 「『동경대전』에 대한 기초적 연구-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모시는 사람들, 2009, 52쪽.

37) 『시천교종역사』, 신사년조.

경대전』과 『용담유사』는 꾸준히 중간되었고, 동학 교세를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동안 비밀리에 포교하던 시기를 지나 사실상 공연히 드러내놓고 포교할 수 있을 만큼 동학이 조직화되었음을 알려준다.<sup>38)</sup>

한편 그동안 최초의 경전으로 불려진 1880년에 간행된 경진판 『동경대전』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0년 경진판으로 추정되는 『동경대전』이 발견되었다.<sup>39)</sup> 이 『동경대전』은 문집형식<sup>40)</sup>으로 간행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sup>41)</sup>

#### 4. 맺음말

이상으로 강원도 지역의 동학의 포교 과정, 그리고 사적과 동경대전의 간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강원도에 동학이 포교된 것은 1860년대였으며, 이경화로부터 전래되었다는 점이다.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와 함께 피체되었던 이경화는 영월 소밀원으로 정배되었다. 그러나 이경화가 동학을 언제 포교하였는지는 정확하지는 않다. 동학에 대한 탄압이 수그러들었거나 이경화에 대한 감사가 소홀하자 주변에 있던 공생 즉 공근석과 장기서에게 첫 포교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해월 최시형이 양양을 넘나들면서 강원도 각지에 동학이 널리 확산되었다.

둘째, 강원도 동학은 초기 동학의 중요한 활동무대였다는 점이다. 동학이 창도된 직후에는 경상도가 중심이었지만 1871년 영해교조신원운동 이후 동학의 활동무대는 강원도로 이동하였다. 영월과 정선을 중심으로 활동한 해월 최시형은 이를 계기로 동학의 조직을 재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해월 최시형은 구성제, 인등제 등 각종 의례를 시행함으로써 동학의 의식을 체계화하였으며, 훗날 동학의 의식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49일 기도를 통해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심을 고취시켰다.

38) 박맹수, 「『동경대전』에 대한 기초적 연구-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모시는 사람들, 2009, 56쪽.

39) 이에 대해서는 윤석산,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에 관하여」, 『동학학보』 20, 동학학회, 2010를 참조할 것.

40) 경진판으로 추정되는 『동경대전』은 기존의 『동경대전』의 체제와 달리 卷之一 포덕문 동학론, 卷之二 수덕문 불연기연 탄도유심급, 卷之三 축문 주문 강시, 卷之四 좌잡 팔절 필법, 卷之五 화결 강결 제서, 卷之六 부시부, 卷之七 통문 등으로 되어 있다.

41) 『동경대전』 판본 연구에 대해서는 박맹수, 「『동경대전』에 대한 기초적 연구-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모시는 사람들, 2009를 참조할 것.

셋째, 강원도 동학은 동학의 최초 경전인 경진판 『동경대전』을 간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동학의 경전은 수운 최제우가 직접 지은 것이었지만 책으로 간행한 것은 해월 최시형이었다. 해월 최시형은 강원도에 포교되기 시작한 동학을 조직화하는 한편 신앙공동체를 만들어나갔다. 이를 통해 해월 최시형은 동학의 역사인 사적과 경전인 『동경대전』을 간행할 수 있었다.

이로 볼 때 1860년대 형성된 강원도의 동학은 영해교조신원운동으로 와해 상황이었던 동학 조직을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종 의례의 확립, 사적 및 경전 간행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강원도 동학은 1893년 교조신원운동을 비롯하여 보은 장내리의 척왜양창의운동,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강원도 동학농민혁명과 인제

엄 찬 호 (강원대학교 HK연구교수)

1. 머리말
2. 강원도 농민혁명의 전개

3. 맺음말

## 1. 머리말

1894년 2월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충청도·경상도·강원도·황해도 등의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1894년 9월 4일 동학농민군이 강릉부를 점령한 것을 시발로하여 강릉, 영월, 평창, 정선, 홍천 등지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에서는 차기석이 인솔한 1,0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동창을 소각하였고, 서석면 풍암리에서는 동학농민군 수천명이 맹영재(孟英在) 토벌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이는 강원도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중에서 가장 큰 전투였고 8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희생된 처절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강원도 지역은 비교적 일찍이 동학이 전파되어 제2대 교주 최시형의 광범위한 활동으로 상당한 지역에 동학이 전래되었고, 동경대전이 간행되는 등 동학의 발전에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던 곳이다. 반면에 강원도는 농경지가 적어 농민층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모순도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로인하여 19세기 전반에 걸쳐 진행되어온 농민혁명에서도 강원도는 뚜렷한 활동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1894년 제1차 농민혁명이 전개될 때에도 강원도에서의 농민혁명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제2차 농민혁명이 시작되는 8월 이후에는 강원도에서도 강릉·평창·정선·홍천 등지에서 활발한 투쟁이 전개되어 11월까지 계속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강원도 농민혁명의 투쟁상황을 각 지역별로 재정리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강원도 농민혁명의 전개

강원도 동학농민혁명은 2차봉기를 전후하여 평창·영월·정선의 농민군과 홍천의 차기석대접주는 수천명의 농민군을 조직하여 평창·정선·영월·강릉·삼척·홍천·원주·횡성·양양·간성·인제·춘천·김화·금성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평창·정선·영월·강릉·삼척·홍천 등지가 중요한 활동무대였다. 『天道敎創建史』에 의하면 9월에 원주에서 이화경(李和卿)·임순화(林淳化), 횡성에서 윤면호(尹冕鎬), 홍천에서 차기석(車基錫)·심상현(沈相賢)·오창섭(吳昌燮) 등이 기포하였고,<sup>1)</sup> 『천도교백년약사』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단을 살펴보면 다음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sup>2)</sup>

이름	직위	비고
車基錫	홍천대접주	12월말경 체포되어 포살됨
金大烈	홍천접주	11월 30일 홍천전투에서 전사
金大永	홍천접주	11월 30일 홍천전투에서 전사
金喜烈	홍천접주	11월 30일 홍천전투에서 전사
朴錫元	홍천접주	12월말경 체포되어 포살됨
朴鍾伯	홍천접주	
朴學祚	홍천접주	12월말경 체포되어 포살됨
沈相賢	홍천접주	
吳德玄	홍천접주	12월말경 체포되어 포살됨
吳昌燮	홍천접주	
龍河京	홍천접주	11월 30일 홍천전투에서 전사
尹冕鎬	횡성접주	
尹泰烈	홍천접주	11월 30일 홍천전투에서 전사
李昌文	홍천접주	11월 30일 홍천전투에서 전사
李和卿	원주접주	
李和奎	홍천접주	11월 30일 홍천전투에서 전사
林淳化	원주접주	

한편 1894년 정월 동학교도들은 각지역에 포소를 설치하였는데, 그 때 홍천에서는 차기석이 포소를 설치하고, 인제에서는 김치운(金致雲)이 포소를 설치하였고,<sup>3)</sup> 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차기석은 홍천에서 김치운은 인제에서 일어나서 투쟁하였다.<sup>4)</sup> 또 인제 남

1) 『天道敎創建史』, 제2편 65쪽.

2) 『천도교백년약사(상권)』, 천도교중앙총부교사편찬위원회, 1981.

3) <東學農民革命史料總書>, 甲午東學亂, 第69章 甲午東學亂, 18쪽.

4) 위의 자료, 26쪽.

면에 거주하던 김계원(金桂元)이 그 지역에서 농민군을 조직하여 투쟁하다 체포되어 장100에 유배 300리에 처해졌다는 기록이 있고,<sup>5)</sup> 김연국(金演局)이 인제에서 체포되어 중심형을 받았다가 5년만에 석방되었다는<sup>6)</sup> 기록으로 보아 인제지역에서도 농민혁명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전체의 농민군 활동은 시기와 지역, 조직적 연계 등을 통해 볼 때 오늘날 평창·정선·영월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세력과 홍천을 중심으로 활동한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1894년 10월 12일 홍천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차기석계 동학농민군은 강릉관아의 점령을 비롯하여 멀리 북으로는 고성·양양, 남으로는 정선·영월, 동으로는 삼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 1) 강릉부 관아 점령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는 남접의 전봉준이 재차봉기를 위하여 9월 14일 삼례로 모이고, 동학교단을 중심으로 한 북접이 9월 18일 청산으로 모이라는 최시형의 교명이 있으면서 시작되고 있다. 이들 남·북접 세력은 오지영의 중재로 논산에서 합세하여 공주를 점거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본격화 되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의 임순화, 횡성의 윤면호, 홍천의 침상현이 기병하여 참여하였다.<sup>7)</sup>

그러나 이에 앞서 동학농민군의 재기병의 움직임은 각지에서 속출하였다. 충청도에서는 일찍이 7·8월부터 공주일대에서 활동하던 농민군이 서장옥과 허문숙을 중심으로 8월 하순에 충주서 기병하였고, 경상도에서는 김해를 비롯한 60여곳에서 봉기한 농민군이 문경등지에서 일본 병참부 공병대와 수차례에 걸친 접전을 벌였으며, 강원도에서는 9월 초 농민군 수천명이 강릉관아를 점령하였다.<sup>8)</sup>

강릉에는 일찍이 1894년 8월 오덕보가 다수의 농민군을 이끌고 신리면으로 들어가 거주하면서 집을 설치하여 연곡·신리일대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하였다.<sup>9)</sup> 또 1894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충청도와 전라도 등지에서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이 시작되자 강원도에서도 원주·영월·평창·정선 등 4읍에서는 농민군이 곳곳에 집을 설치하고 세력을 결집하며 활동하기 시작하였다.<sup>10)</sup> 이들을 이끈 지도자들은 평창의 전 좌수 이치택

5) <東學關聯判決宣告書>, 乙未(1895년), 제44호 金桂元(麟蹄).

6) <東學農民革命史料總書>, 甲午東學亂, 第69章 甲午東學亂, 32쪽.

7) 오지영, 『동학사』, 1984, 대광문화사, 「報恩會集과 京城會集」

8) 김양식, 「1894년 농민전쟁의 전개」, 『근현대사강좌』 5호, 한울, 1994, 78쪽.

9) 「東匪討論」,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4,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1894년 11월 21일 關平昌郡, 12월 2일 牒衆使.

10) 「東匪討論」, 1894년 9월 8일 文告巡營及兼官.

(李致澤), 권지관(權地官), 진사 박재회(朴載會), 영월의 나교장(羅敎長), 삼척의 황찰방(黃察訪), 정선과 여량역의 지왈길(池曰吉), 강릉부 대화면의 김상오(金相五)·공계정(孔啓正)·김순길(金順吉)·손영팔(孫永八) 등으로 수천여명을 이끌고 있었다.<sup>11)</sup>

이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8월 20일에는 강릉부 대화면(大和面)에서 농민군이 김장수(金長水)의 집을 훼손하고 가사와 집기를 빼앗았은 후, 대관령을 넘어 강릉부로 진격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강릉부 정동면(丁洞面) 선교(仙橋)의 승지 리회원(李會源)은 성묘하려고 고향에 내려와 있다가 길이 막혀 서울로 다시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에 리회원은 마을 사람들과 의논하여 집집마다 한사람씩 창검을 가지고 모이게 하여 선교장 앞 공터에서 장정을 검열하고, 감찰인 정용화의 집에서 점심으로 밥과 고깃국을 마련하여 마을 사람들을 모아 대접하였다. 그러자 영서에 있던 농민군들이 “강릉의 어떤 부잣집에서 우리들을 위해 술을 빚고 소를 잡아 저장하여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선교의 이 아무개는 우리를 해치려고 창검을 점고하고 있다” 하였다고 한다.<sup>12)</sup>

이렇게 강릉부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농민군은 9월초에 이르러 충청도의 제천과 청주 등지의 농민군과 합세하니 1,000여명으로 세가 불어나 강릉으로 진군하기 시작하였다. 농민군은 강릉부 대화면 모노기(毛老崎)를 넘어 진부면에 도착하여 각지로 돌아다니며 포·총·말·창·갈·미투리[麻鞋]를 징발하였으며, 없는 집은 돈으로 대신 거두어 무기와 군수를 보충하였다. 돈으로 대신 거두는 경우는 총 1자루는 10냥, 창 1자루는 2냥, 미투리 1켤레는 5전으로 집집마다 3~4냥에 이르는 돈을 거두었다고 한다. 9월 3일 대관령을 넘어 구산역에서 묵고, 성산면 금산 집장인 김양반을 붙잡아 징치하였다.<sup>13)</sup>

9월 4일 영월과 평창·정선 등 5개읍의 동학농민군 수천명은 부사가 교체되면서 자리가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강릉부를 점령하고,<sup>14)</sup> 삼정을 바로잡고자 하였다.<sup>15)</sup> 농민군은 오전 12시경 읍에 들어갔는데, 일부는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탔고, 나머지는 걸어서 뒤를 따랐다. 이들이 우비를 입거나 검은 파의(破衣)를 걸치고, 13자의 주문<sup>16)</sup>을 외우면서 시내를 행군하자 소작농이나 양반들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놀려 있던 백성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강릉부를 점령한 농민군은 각 점막에 나누어 거처하였고, 이 때 먼저 온 수백명에게는 아전들이 술과 쇠고기를 미리 준비하여 대접하였다. 또 작칭의 아전들

11) 「東匪討論」, 1894년 9월 일 留鄉座首爲牒報事.

12) 「臨瀛討匪小錄」,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4,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471~472쪽.

13) 「臨瀛討匪小錄」, 472~473쪽.

14) 당시 해당부사는 전임 慈城郡守였으나 교대하기를 기다리느라 부임하지 못하고 있어, 대신 전 승지 李會源을 차하여 부임하도록 하였다.(『고종실록』, 고종 31년 9월 26일)

15) 「東匪討論」, 1894년 9월 4일 在營.

16) 동학의 기본 주문인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를 말한다.

은 마을마다 요호에게서 쌀과 돈을 거두어 여러 점막에 비용으로 나누어 주었고, 한사람마다 1끼에 1되씩을 주어 먹게 하였다. 경방(庚方)의 도사(都事) 최윤정(崔允鼎)의 집에서 점심으로 술과 밥을 내어 대접하였는데, 그 수가 1,000여명이 되었다. 농민군은 저녁이 되자 구산역에서 수백명이 내려와 합류하였고, 이들은 내려올 때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햇불을 들어 비추게 하였으며, 그 후 매일 밤 어두워지면 삼삼오오 대오를 지어 언덕위로 갔다가 다음날 아침 밥먹을 때 왔는데, 구산역에서 경방까지 10여리의 길을 햇불로 비추게 하였다.<sup>17)</sup>

9월 5일 농민군은 강릉부 동문에 ‘삼정(三政)의 폐단을 개혁하고 보국안민(保國安民)한다’는 방문을 내걸고 삼정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요호를 불러들여 재산과 전답문서를 빼앗았으며, 이서배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민간의 송사를 쉽게 처결하였다.<sup>18)</sup>

그리고 9월 6일 농민군은 ‘내일 선교에 들어가겠다’고 하여, 강릉부의 정동면 승지 이회원 집을 친다고 포고하였다. 이때 선교에서 신임을 받고 있던 읍의 아전인 정시중(鄭始中)과 최희민(崔熙民) 등은 종종 선교를 왕래하며 농민군과 고을의 소식을 선교에 알려주고 있었다. 이날도 정과 최 두아전은 선교에 은밀히 통고하기를 ‘농민군을 토벌하는 논의를 이미 끝낸 읍인과 최도사(崔都事)가 오늘밤 닭이 운 뒤에 거사하기로 하였고, 정동면은 북문 안 군기고 앞에서 호응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이회원은 각 마을에 이러한 뜻을 은밀히 알리는 한편, 사람들로 하여금 백미 100말과 돈 300꾸러미를 농민군에 보내 농민군의 점심과 저녁을 대접하게 하였다. 곧 농민군을 안심시켜 경계를 풀고 선교로 쳐들어오는 것을 늦추려는 교묘한 술책이었다. 그러나 반동학군의 계획은 갑자기 비가 내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다음날 비가 멈추면 거사하기로 하였으나, 비가 그치지 않자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농민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반동학군이 단봉을 들고 동문으로 난입하자 비 때문에 점막에 머물러있던 농민군은 함성을 듣고 도주하기 시작하였으나 날이 어두워 피해가 심하였다.<sup>19)</sup> 농민군은 20여명이 현장에서 죽었고, 부상당한 후 도주하다가 죽은 자도 다수 있었으며, 또 총 7자루와 창 157자루, 말 3필을 빼앗기고 패퇴하였다.<sup>20)</sup>

강릉에서 후퇴한 영월·평창·정선의의 농민군은 10월 20일경 제천·청주 등지의 농민군과 합하여 1,000여명으로 세를 불린 후 정선군을 점령했다. 정선군수는 이미 서울로 도망친 상태여서, 농민군은 이방의 목을 베고 백성들에게서 군수물자를 보완하며

17) 「臨瀛討匪小錄」, 473~475쪽.

18) 「臨瀛討匪小錄」, 475쪽 ; 「東匪討論」, 1894년 9월 8일 文告巡營及兼官.

19) 「臨瀛討匪小錄」, 475쪽.

20) 「東匪討論」, 1894년 9월 일 留鄉座首爲牒報事.

‘강릉에 가서 9월의 원수를 갚겠다’고 선언했다.<sup>21)</sup> 특히 대화면에서는 구도미(九道味)에 사는 김상오(金相五), 거사전(居士田)에 사는 공계정(孔啓正), 안尾(鴈)에 사는 전순길(全順吉), 계촌(桂村)에 사는 손영팔(孫永八), 평창의 진사 박재회(朴載會) 등이 강릉부에서 쫓겨남을 분하게 여겨 서로 비밀리에 다시 농민군을 모으고, 포수들을 모집하여 영동을 공격할 계획을 준비하였다. 또 대화면은 강릉부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공납의 상납 및 문첩의 운송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농민군은 이곳을 차단하고 영동사람들도 왕래하지 못하도록하였다.<sup>22)</sup>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사이 영월·정선의 농민군은 수천여 명으로 늘어나, 정선읍에 모인 농민군 수가 3,000여명, 평창의 후평에 모인 농민군이 1,0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sup>23)</sup> 정선 여량의 농민군들은 지왈길(池日吉)·이중집(李仲集)의 지도아래 강릉의 임계 등지에서 요호 부민들을 공격하며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순무영(巡撫營)에서는 강릉부사 이회원을 정부에 관동소모사(關東召募使)로 추천하여 농민군들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평창의 후평에 모여있던 10,000여명의 농민군은 11월 5일 순영군과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100여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 접주 이문보(李文甫) 등 5명은 체포되어 처형당하였다. 나머지 10,000여명의 농민군은 정선 등 각지로 흩어졌다.<sup>24)</sup>

그 중 정선의 여량으로 들어가 농민군은 11월 6일 강릉의 중군 이진석과 조철승이 이끄는 토벌군과 접전하여 10여명이 전사하였고, 접사(接司) 이중집(李仲集) 등 5명은 체포되었다. 체포되었던 이중집과 임순철·김윤언 등 3명은 즉시 총살당하였고, 나정백과 정만천은 산골짜기 농민으로 부득이 가입하였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귀향조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농민군 가옥 70여호는 흩어진 농민군이 돌아와 뒤에 근거지가 될까 두려워한 토벌군에 의해 불태워졌다.<sup>25)</sup> 그 후 영월·평창·정선에서 활동하던 농민군중 일부는 토벌대에 밀려 삼척 상하장면 쪽으로 숨어들어 갔고,<sup>26)</sup> 삼척 도상면 유천동의 농민군과 정선의 대전 및 궁전곡의 농민군이 합세하여 정선과 삼척의 경계를 왕래하여 활동하였다.<sup>27)</sup> 11월 25일에는 정선 여량의 농민군 지도자 지왈길이 잡혀 참수당하였고, 삼척 하장면에 숨어있던 농민군도 최윤수의 공격에 의하여 모두 흩어지게 되었다.<sup>28)</sup>

21) 「臨瀛討匪小錄」, 485쪽.

22) 「東匪討論」, 1894년 9월 16일 文狀草.

23) 「東匪討論」, 1894년 11월 3일 牒叢.

24) 「東匪討論」, 11월 10일 在平昌邑.

25) 「東匪討論」, 11월 일 牒巡使.

26) 「東匪討論」, 1894년 11월 20일 關三陟府.

27) 「東匪討論」, 1894년 11월 8일 關三陟府使.

이와 같이 1894년 8월 이후 영월·평창·정선 등지에서 기포하여 강릉관아를 점령하는 등 10,000여명이 활약하던 농민군은 정부의 토벌대와 일본군 그리고 반동학군의 추격과 토벌로 더 이상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일부는 차기석대접주의 홍천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홍천 전투

홍천지역에서는 최시형의 교명에 의해서 9월 차기석·심상현·오창섭 등이 기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평의 고석주(高錫柱)·이희일(李熙一)·신창희(申昌熙)가 이끄는 농민군 수백명이 9월중에 접을 설치하여 활동하였다. 이들의 활동이 차기석 농민군과 관련이 있는지는 불명확하나 이들은 홍천과 지평을 오가며 활동하다가 지평현 전 감역 맹영재가 민포군 부약장(副約長)이 되어 관포군(官包軍)과 김백선이 이끄는 사포군(私包軍) 등 100여명에 의해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면서 각지로 흩어졌다.<sup>29)</sup> 그 후 이들 가운데 일부가 충주의 황산충의포(黃山忠義包)로 갔다<sup>30)</sup> 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흩어진 농민군 일부는 내면 쪽으로 와서 차기석의 농민군에 합류했을 것으로 보인다.

1894년 9월 말쯤 내면의 차기석은 ‘자신들이 호남이나 호서의 동학농민군과는 같지 않고, 다만 학업을 하며 의롭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하며 농민군을 조직하니 1,000여명의 무리가 모였다. 이들은 오대산 서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내면을 근거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내면은 길이 막혀있고 멀며, 산과 계곡이 험준하여 농민군이 근거지를 삼기에 적당한 곳이었다. 그는 농민군을 일으켜 창고에 불을 지르고, 호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집을 불태웠으며, 상인들에게서 포목·해산물·가축 등 재물을 빼앗기도 하였다. 또 내면 근처에 거주하는 윤태열(尹泰烈)·정창해(丁昌海)·조원중(趙元中)·정운심(鄭雲心) 등은 차기석접주의 이름으로 군사를 모으고, 창고 옆에 목책을 세워 각 마을별로 집집마다 좁쌀 6말과 미투리 1결레씩을 거두어들였으며, 진부면의 안영달(安永達)과 김성칠(金成七) 등도 농민군에 합류하였다.<sup>31)</sup>

당시 강릉·양양·원주·횡성·홍천 등 5읍의 접주로 불리던<sup>32)</sup> 차기석은 박종백과 함께 10월 13일 농민군을 이끌고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동창을 들이쳐서 건물을 불태

28) 「東匪討論」, 1894년 11월 26일 牒巡使.

29) 「啓草存案」, 1894년 9월 26일.(『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7, 東學農民戰爭百周年紀念事業推進委員會, 1996)

30) 「天道教會史草稿」, 462쪽.

31) 「臨瀛討匪小錄」, 481~482쪽.

32) 「東匪討論」, 1894년 11월 일 牒巡使.

우고 강릉 좌운(坐雲)으로 옮겨 동학농민군의 세력을 더욱 키웠다.<sup>33)</sup>

차기석의 농민군세력이 점차 커지자 정부에서는 앞서 홍천에 접을 두고 활동하던 고석주 등의 농민군을 토벌한 공으로 소모관이 된 지평현감 맹영재에게 알렸다. 그는 홍천접을 깨뜨린 뒤 9월 말부터 10월 20일 무렵까지 여주·이천·음죽 등 경기도 일대에서 농민군을 토벌하고 있었다.<sup>34)</sup> 이에 맹영재가 포군을 이끌고 경기도에서 홍천으로 들어옴에 따라 차기석과 박종백은 농민군을 이끌고 장야촌에서 맞서 싸웠으나 농민군은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솔치재를 넘어 서석으로 후퇴하였다.<sup>35)</sup> 서석은 동으로는 뱃재를 넘어 내면, 남으로는 먼드래재를 넘어 횡성, 서로는 솔치재를 넘어 홍천과 통하며 북서로 동창을 지나 내촌으로, 서남으로 부목재를 넘어 홍천 동면으로 통하는 요충지였다.<sup>36)</sup>

차기석의 농민군이 서석으로 후퇴하자 이어 맹영재도 포군을 이끌고 서석으로 추격해 왔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도순무영에서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召募官 孟英在가 행군하여 홍천 長野村에 이르러 匪賊 30여 명을 쏘아 죽이고 방향을 바꾸어 瑞石面에 이르니 비적 수천여 명이 흰 기를 세우고 진을 치고 모여있기에 총을 쏘며 접전하였는데 사상자는 그 수를 알 수 없고 사로잡은 놈들은 모두 어리석어서 강제로 끌려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하고 일일이 타일러서 놓아 보내어 귀순하여 생업에 안착하게 하였습니다."<sup>37)</sup>

10월 22일 농민군이 맹영재의 토벌대를 맞아 치열한 접전을 벌인 곳은 지금 홍천군 서석면 면사무소 뒤편, 풍암1리와 2리를 가르는 낮은 구릉인 진등이었다. 홍천 서석 풍암리 진등위에 진을 친 차기석은 농민군을 이끌고 맹영재의 토벌군에 맞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농민군은 총이 모자라 버드나무를 깎아 먹칠을 해서 무기가 많은 것처럼 위장을 하기도 했고, 주문을 외우면 토벌군의 총에서 총탄이 아니라 빨간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면서 사기를 북돋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식무기로 무장을 하고 경기도 일대에서 농민군 토벌에 맹위를 떨치고 있던 맹영재와 접전을 벌인 차기석의 농민군은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 날 희생당한 농민군과 동네사람들의 수는 800여명에서 1,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 전투로 홍천군 서석면 일대는 '인종(人種)이 영절(永絶)하였더라'라고 할 정도였다.<sup>38)</sup>

33) 『東匪討論』 갑오 11월 초1일, 107쪽.

34) 『兩湖右先鋒日記』, 갑오년 9월 30일, 10월 21일, 『東學亂記錄』 上, 국사편찬위원회, 1971, 264쪽, 286쪽.

35) 『고종실록』, 고종31년 11월 2일.

36) 박준성,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208쪽.

37) 『고종실록』, 고종31년 11월 2일.

38) 『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1, 464쪽.

풍암리 뒷산의 얽막한 고개를 자작고개라 하는데, 여기에서 진을 치고 싸우다 죽은 동학교도들의 시체가 묻혀 썩어 내려앉아 잿아진 고개라 하여 자작고개라 불렀다. 자작고개 옆에는 성황당이 세워져 있어 한 많은 죽음을 당한 동학교도들의 혼을 위로하는 곳이 되기도 했다. 풍암리의 진등은 동학군이 진을 쳤다고 해서 진등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동북편에서 고양산·아미산이 내려다 보고있는 이 진등의 고개를 자작고개라 하는 것이다. 풍암리 남쪽에 있는 군두리는 상군두리·하군두리로 되어 있는데, 동학과 의병항쟁 때 군인들이 주둔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등이고개, 진등, 군두리 등의 명칭은 동학혁명전과 의병항전과 관련있는 지명이다.

풍암리를 중심으로 서석면 일대의 마을은 10월 20일을 전후해서 제사를 올리는 집안이 많다. 엄정삼, 엄맹삼, 엄현삼, 홍영철, 고덕용, 김유심, 서충보 외에 고씨, 최씨(2명), 김씨(3명), 이씨, 박씨, 황씨 등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 중에서 16명의 제사가 올려지고 있다.<sup>39)</sup>

당시 차기석은 북접과 합류하여 공주전투에 참여하거나 서울로 진격하려고 동창을 치고 홍천쪽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서석전투에서 맹영재의 반격을 받고 패배한 뒤 내면쪽으로 퇴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봉평지역에서 활동하던 윤태열과 이창문(李昌文)·김대영(金大永)·김희열(金喜烈)·용하경(龍河京)·오순영(吳順永)·이화규(李和奎) 등의 농민군은 10월 26일 관동소모사의 중군 이진석과 이영찬의 공격에 의하여 사로잡혀 총살당하였고, 11월 2일 정창해(鄭昌海)도 추격당해 총살당하였으며, 안영보(安永甫)와 김순복(金順卜)은 체포되어 관아의 옥에 갇히게 되었다.<sup>40)</sup> 이에 차기석은 몰래 기린·양양·간성 등에 통문을 보내어 비밀리에 농민군을 모아 봉평을 치고자 하였다.<sup>41)</sup>

이 때 이진석과 함께 봉평의 농민군을 토벌한 포군대장 강위서(姜渭瑞, 姜羽西)가 11월 6일, 토벌군을 이끌고 내면 1리 창촌으로 들어와 창고에서 묵자 산 위에 매복해 있던 차기석 부대는 밤중에 강위서 군대를 습격하여 3명을 사살했다. 강위서의 포군부대는 8명의 부상자를 이끌고 패배한 채 내면에서 쫓겨나야 했다.<sup>42)</sup>

그러나 정부군은 곧이어 양양부의 분의군 50명을 장혁주로 하여금 인솔하게 하여 운두령으로 출발시키고, 본부에 있는 별군관 50명은 종사관 이석범으로 하여금 인솔하게 하여 구룡·신배·응봉 등 세봉으로 보내 협공토록 하였다.<sup>43)</sup> 그리하여 강원도 동학농

39) 『江原道史』, 강원도, 1995, 1075쪽.

40) 「東匪討論」, 1894년 11월 1일 諜巡營 ; 1894년 11월 3일 牒兼.

41) 「東匪討論」, 1894년 11월 5일 西時關杆城郡.

42) 「東匪討論」, 1894년 11월 일 諜巡使.

민군의 최고 지도자 차기석이 이끄는 농민군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계방산과 오대산 기슭의 내면 자운 흥정과 계방천이 흐르는 협곡에 자리잡은 원당리·청두리·약수포 등지에서 토벌군을 맞아 치열한 최후의 항전을 벌이게 되었다. 특히 청두리에서 약수포까지는 토벌군도 70리의 벽을 기어오르며 전진했다고 할 정도로 험난한 곳이다. 이 계곡은 오대산 두루봉과 구룡령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큰 산줄기에 의해 양양·강릉의 영동과 갈라지며, 그 사이에 모두 해발 1,000m가 넘는 신배령·응복산·응복령·약수산이 놓여 있다. 앞이 무성한 계절이라면 험난한 이곳 지형은 유격투쟁을 벌이기 적합할 것이나 활엽수 잎이 모두 지고 눈이 쌓인 음력 11월 중순, 사방에서 협공하는 토벌군을 맞아 싸우기에는 매우 불리했다. 봉평에서 내면에 이르는 보래령·운두령과, 양양·강릉에서 내면으로 통하는 신배령·응복령이 토벌군에게 장악된 상태에서 서석 쪽으로부터는 맹영재의 협공을 당한 농민군은 토벌군 뿐 아니라 지형에도 포위당한 꼴이 되었다.<sup>44)</sup>

그러나 차기석은 1,000여명의 농민군을 모아 봉평과 내면 및 영서 각 읍 등을 공격하여 창과 총을 빼앗고 창고와 가옥에 불을 지르기도 하며 기세를 드높였다. 이에 도순무영에서는 박동의(朴東儀)에게 군병을 인솔하도록 하여 내면으로 보내고 이어서 양양관아에 관문을 보내어 병정을 모집하도록하니 이석범(李錫範)이 최주하(崔舟河)·김준수(金僑秀)·장혁주(張赫周)와 함께 내면으로 출동하였다. 11월 11일, 내면 자운에 주둔하고 있던 농민군은 박동의의 연락을 받고 내면 1리 창촌에 주둔하고 있던 강위서와 60여명의 토벌군을 이끌고 합세한 흥천 허경의 침입을 받아 접주 위승국(魏承國) 형제와 접사 심성숙(沈成淑)·박군오(朴君五)·정창호(丁昌浩) 등 17명이 포살되었다. 차기석은 내면 원당리에서 깃발을 날리며 농민군을 이끌고 저항했으나, 다음날, 운두령을 넘어온 강릉의 박동의와 양양의 이석범이 이끄는 토벌군의 협공을 받아 생포되었으며, 성찰 오덕현(吳德玄), 집강 박석원(朴碩元)·지덕화(池德化) 3명은 포살당하였다. 13일에는 내면 청두리에서 흥천의 농민군 지도자 권성오·權守淸 등 12명이 포살당했다. 약수포 쪽으로 밀리던 500여명의 농민군은 청두리 쪽에서 추격한 농민군과 신배령을 넘어온 이석범의 동생 이국범(李國範), 응봉령을 넘어온 이석범의 부종(副從) 김익제(金翼濟)의 토벌군에게 세 방향에서 협공을 당하여 접주 김치실(金致實) 등 11명이 포살당하고 접사 朴學祚는 생포되었다. 농민군의 근거지로 삼았던 세 곳의 별당과 37채의 집도 불태워졌다. 자운·흥정·신흥 등의 농민군도 강위서가 이끄는 토벌군에 밀리면서 임정호

43) 「東匪討論」, 1894년 11월 9일 關 襄陽府.

44) 박준성,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210쪽.

(林正浩) 등 38명이 포살당하였고, 생포된 내면의 농민군 지도자 차기석과 박학조는 11월 22일 강릉 교장에서 효수당했다. 정선에서 체포된 이증집(李仲集)·임순철(林順哲)·김윤언(金允彦) 등도 이때 같이 포살되었다.<sup>45)</sup>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생곡리 휴게소에서 내면방향으로 10m쯤 좌측 산기슭에 많은 무덤들이 이 있는데, 이것이 동학농민군들의 무덤이라고 하며,<sup>46)</sup> 생곡리 미약골에도 수많은 동학농민군의 무덤이 있었다고 한다.<sup>47)</sup>

농민군 주요 지도자들이 잡히고 나서도 농민군의 활동은 산발적으로 이어졌으나 반농민군의 토벌도 계속되었다. 11월 말 내면의 민정과 양양군병에 의해 약수포에서 농민군 10여명이 잡혀 강릉부로 끌려가 포살되었으며,<sup>48)</sup> 12월 초에는 신배령 부근에서 농민군 손장업(孫長業)·김창수(金昌守)·이관구(李寬九)·오주실(吳周實)·이동익(李東益)·고준성(高俊成) 등이 잡혀 이동익·고준성은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귀화하여 석방되었다.<sup>49)</sup> 12월 7일에는 진부면 소모종사 박동의에게 농민군 성찰겸 초장 김성철이 잡혀 포살되었고, 12월 10일에는 내면의 농민군 12명이 내면과 양양의 민정에게 잡혔다가 효유·귀화하였다.<sup>50)</sup> 12월 중순 무렵에는 진부·도암 양면에서 농민군이 총과 창을 탈취하여 대화면을 위협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sup>51)</sup> 강원도 주력 농민군의 활동은 11월 중순 내면에서 농민군 주요 지도자들이 포살 또는 생포당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강원도는 2차농민혁명이 끝난 후에도 농민군 지도부의 피난처이며 포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天道教創建史』에는

"갑오 12월 24일로 끝마친 동란의 여파로 나라에서 餘黨을 진멸코자 하여, 우선 그 괴수되는 神師를 체포코자 각지에 수사망을 치고 천하에 명하여 大索하는 지라, 신사가 손병희, 손병흥, 손천민, 김연국으로 더불어 흥천에 잠유하다가, 을미년 정월에 인제군 崔永瑞家에 이르러 諸人에게 일러 가로대, 이때 두령된 자 가히 한 곳에 구유하지 못할지라 하시고...."<sup>52)</sup>

라고 했다. 그리하여 1895년 6월 최시영은 최영서집에서 최우범(崔禹範)집으로 옮겼고,

45) 「東匪討論」, 1894년 11월 일 牒巡使 ; 갑오년 11월 23일 道巡撫營.

46) 강문백(67세, 생곡리 거주) 증언.

47) 이덕재(63세, 생곡리 거주) 증언.

48) 「東匪討論」, 1894년 11월 29일, 官襄陽府.

49) 「東匪討論」, 1894년 12월 5일.

50) 「東匪討論」, 1894년 12월 10일, 첩경사.

51) 「東匪討論」, 1894년 12월 14일, 傳令.

52) 「天道教創建史」, 제2편 71쪽.

12월에 다시 원주 수례촌(水禮村)으로 옮겨 숨어서 포교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1897년 8월 최시형은 원주 전거언리(前巨彦里)로 옮겨 포교하고, 1898년 1월 경기도 지평 갈현 이강수(李康洙) 집으로 옮겼다가, 다시 홍천군 서면 제월동 오창섭(吳昌燮) 집으로 옮겨 한달간 포교하게 되었다. 이해 2월 그믐에 여주 임학선(林學善)의 주선으로 원주군 송동(松洞) 원진여(元鎭汝)집으로 이접(移接)하였고, 이때 손병희도 원주 둔둔리로 이접하였다. 이곳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최시형은 4월 6일 송동(송골)에서 송경인이 이끄는 관군에게 체포되어 서울로 옮겨졌다.

송골(지금의 원주군 호저면 송골마을)에 은신했다가 관에 체포됨으로써, 제1대 교조로부터 38년간 숨어서 포교하던 사업이 끝났다. 그때 손병희는 섬배(지금의 원주군 소초면 의관리 윗섬배) 이화경의 집에 머물렀는데, 섬배는 송골에서 5리 가량 되는 곳이다. 김연국은 옥적리(지금의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옥지기)에 있었으므로, 의암, 구암 등 최시형의 수제자들이 송골과는 10리 안팎의 지역에 피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피신처가 홍천의 접주였던 오창섭의 집과 원주의 접주였던 이화경의 집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원주와 홍천의 동학 수령들이 자기 고장을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홍천의 차기석접주 하에 활동하던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들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부분 동학교도들이었던 것으로 보아 풍암리전투에 참전했던 대부분의 동학교도와 이 지역 동학교도 지도자들이 풍암리전투 후에 피신하여 최시형의 포교사업을 도왔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sup>53)</sup>

### 3. 맺음말

강원도 동학농민군의 투쟁은 1894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어느 지역 못지않게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강원도의 투쟁은 강릉관아 점령사건과 그 후 평창지역에서의 전투, 홍천지역에서의 전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한때는 1만여명에 이르는 많은 수의 농민군이 집결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강원도 농민항쟁은 가시적인 투쟁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하였지만, 농민군은 일시적 이나마 강릉부에서 삼정의 폐단을 고치고 보국안민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삼정을 삭감하고 요호를 잡아들여 토지와 재산, 전답문서를 빼앗고 민간의 송사를 마음대로 처벌하는 등 사회개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듯 강원도의 농민항쟁은 제2차 농민

53) 『江原道史』, 강원도, 1995, 1076쪽.

봉기때의 타지역과는 달리 반침략적인 성격보다는 반봉건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강원도 농민군은 정부와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해산하였지만, 이후에 전개되어진 항일의병전쟁에 개별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동학교도들은 최시형을 도와 동학 지도부의 보호와 포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강원도 동학의 움직임은 동학의 유지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원역사교사모임, '강원지역 동학농민전쟁의 맥을 찾아서', 『살아있는 삶을 위한 역사교육』  
2, 푸른나무, 1991.
- 국사편찬위원회, 『東學亂記錄』, 1971.
- 東學農民戰爭百周年紀念事業推進委員會,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7, 1996.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2008.
- 박맹수, 「강원도의 동학비밀포교지에 관한 연구」, 『춘천문화』 제10호, 1995.
- 박준성, '강원도 농민항쟁의 흐름', 『동학농민전쟁역사기행』, 여강출판사, 1993.
- 박준성, '부농으로 서석 전투에서 싸운 최도열, 증손 낙인', 『다시피는 녹두꽃』, 역사비평사,  
1994.
- 박준성,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  
와 사회변동』, 새길, 1995.
- 배항섭, '강원도에 서린 동학농민군의 발자취', 『역사비평』 계간11호, 1990년 겨울.
- 오지영, 『동학사』, 대광문화사, 1984.
- 元永煥, 「강원도 지방의 동학과 동학혁명」, 『江原文化史研究』 5, 2000.
- 尹錫山 譯註, 『道源記書』, 문덕사, 1991.
- 李敦化, 『天道教創建史』, 天道教中央宗理院, 1933.
- 정은경, 「1894년 황해도·강원도지역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 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 韓國學文獻研究所, 『東學思想資料集』, 1979.
- 韓祐勳, 「東學農民軍의 蜂起와 戰鬪-江原·黃海道の 경우-」, 『韓國史論』 4, 1978.

# 강원 인제지역 동학포교와 유적지

-海月 崔時亨의 활동을 중심으로-

임 호 민 (관동대학교 사학과 연구교수)

- |                |                  |
|----------------|------------------|
| 1. 머리말         | 4. 『동경대전』 간행과 의의 |
| 2. 인제지역 포교활동   | 5. 맺음말           |
| 3. 인제지역 동학 유적지 |                  |

## 1. 머리말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가 동학을 창시한 시기는 1860년(철종 12)이며, 본격적인 포교를 전개한 시기는 그 이듬해로 자연스럽게 동학의 문풍이 전해 듣고 온 어진 자들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한다.<sup>1)</sup> 그의 조카인 최시형은 백지삼숙(白紙三束)을 지참하고 경주 용담에 있던 최제우를 직접 찾아가 동학에 입도하였다.<sup>2)</sup> 최시형이 동학에 입도한 동기는 신분적 불만과 불우한 성장 과정에 기인하였다고 한다.<sup>3)</sup>

한편 1863년 12월에 이르러 최제우는 각지에 접소를 설치하고, 그 지역에서 인망과 지위가 상당한 인물을 접주로 임명하였다. 교도들 사이에서 접장이라고 불리운 접주는 교도들의 훈련과 관리의 일을 담당하였다. 또 1864년 7월 최경익(崔慶翊)을 복점 도주로 임명, 종무를 통할하여 각 접과의 연락을 취하게 하였다. 교세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포교 4년째인 1864년(고종 1) 좌도혹민(左道惑民)의 죄목으로 그는 처형되었는데, 그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를 동학의 근본으로 삼았다.

그가 처형된 후 그의 조카 최시형이 보은의 산중에 숨어 살면서 요술을 전파하며 이를 동학이라고 하였고, “세상이 장차 큰 난리가 일어나므로 동학이 아니면 살 수가 없

1) 適至辛酉春 作布德文 時惟六月 將有布德之心 而欲得見時人之賢者 自然文風以來者 不計其數也(『崔先生文集道源記書』, 『東學思想研究資料集』壹, 亞細亞文化社, 1979, pp.170~171)  
2) 吳尙俊, 『本教歷史』, 『天道教會月報』6, 1911. 1, p.19.  
3) 趙成雲, 「海月 崔時亨의 道教 傳授와 初期 布教活動(1862~1875)」, 『동학연구』7, 한국동학학회, 2000, pp.5~6에 의하면, 최시형은 早失父母하여 가난하였으며, 청소년기에는 머슴살이와 造紙所에서 노동을 하였으며, 1845년 19세에 흥해의 밀양손씨 가문에 장가간 후에도 화전을 일구며 머슴살이를 하면서 생계를 꾸렸다고 한다.

다. 그리고 진인(眞人)이 나와 계룡산에다가 도읍을 정하는 데 그 장상(將相)과 위명공신(位命功臣)들은 모두 동학도들이다”<sup>4)</sup>라고 하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포덕을 실시하여 전라도,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최시형은 포덕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조직 구성<sup>5)</sup>에도 정성을 들여 전국 각지에 포제를 실시했으며, 각 포에는 접주를 두어 통솔케 하였다. 교조신원운동 무렵에는 각 포 대접주에게 포명을 주고 8개 교구로 구분하였다.<sup>6)</sup>

한편 강원도 지역에서 동학 포교는 1864년 최제우의 제자 이경화가 영월로 정배되면서 3월 영월 소밀원에서 장기서에게 처음으로 포교한 사실과 『천도교창건사』에 기록된 바처럼 1869년 강원도 양양사람인 최혜근(崔惠根)·김경서(金慶瑞)가 영양(英陽) 일원산(日月山)에 은거하고 있던 최시형을 찾아 가 한말에 따르면, 이들은 벌써 공생(孔生)으로부터 동학에 대해 전해 듣고 입도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그러므로 강원도 지역에 동학에 관한 정보가 알려진 것은 영서지역의 경우 영월 소밀원지역이고 영동지역은 양양지역이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먼저 동학이 전래되었는지에 대한 견해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기록상 1864년 영월 지역에서 이경화에 의해 장기서에게 전도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1864년 전래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sup>8)</sup>

한편 최시형은 1869년 이후 양양, 영월, 인제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인제에 머물면서는 동학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동경대전』을 편찬함으로써 교리의 체계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1872년 1월 최제우의 큰아들 세정이 인제 귀둔리에서 체포되어 양양관아 간헐다가 같은 해 5월 처형된 이후 교조 최제우에 대한 제사권을 장악하면서 명실공히 2대 교주로서의 역할을 굳히게 되었다.<sup>9)</sup> 그러나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확산되면서 위기에 봉착한 조정은 최시형을 동비(東匪)의 적괴(賊魁)로 규정하였고, 1898년 그의 일당 황만기(黃萬己), 박윤대(朴允大), 송일회(宋一會)<sup>10)</sup> 등이

4) 黃玑, 『梅泉野錄』 제1권 下(1894년 이전)

5) 교장에는 자질이 알차고 인망이 두터운 사람을 뽑고, 교수에는 성심으로 수도하여 도를 전달할 수 있는 자로, 도집은 감화력이 있고 기강이 밝으며 경계를 아는 사람을 세웠다. 집강은 기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대정은 공평하고 신중 중후한 사람을, 그리고 증정은 바른 말을 능히 할 수 있는 강직한 사람을 세웠다.

6) 忠慶大接主 任奎鎬, 淸義大接主 孫天民, 忠義大接主 孫秉熙, 文淸大接主 任貞準, 沃義大接主 朴錫奎, 關東大接主 李哲雨, 湖南大接主 南啓天, 尙功大接主 李觀永

7) 배항섭, 「강원도에 서린 동학농민군의 발자취」, 『역사비평』 겨울호, 역사비평사, 1990, p.353.

8) 박맹수, 『崔時亨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67.

9) 박맹수, 위의 논문, pp40-47; 趙成雲, 앞의 논문, 2000, p.3에서는 1875년 최제우에 대한 제사권 장악 시점을 도통의 인수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天道敎書」, 『亞細亞研究』9, 1962, 5, p.219에서는 1863년 8월 14일 도통이 최시형에게 인계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10) 江原道原州郡 平民被告 崔時亨年七十二 京畿驪州郡 平民被告 黃萬己年二十九 忠淸北道沃川郡 平民

밀고함으로 인해 원주 산중에서 체포되어 처형되었다.<sup>11)</sup>

본고에서는 최시형이 양양에 와서 처음으로 포교활동을 시작한 1869년부터 1898년 처형될 때까지의 강원도, 특히 인제지역에서의 주요 포교활동에 대해 1894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구분하여 포교활동, 인제지역 주요 동학 관련 유적지에 대한 검토와 2대 교주 최시형이 인제지역에 은거하면서 추진한 동경대전 간행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 2. 인제지역 포교활동

### 1) 1894년 이전

최시형이 최초로 포교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가 살던 검곡(劍谷)으로 그곳에서 영덕, 상주, 흥해, 예천 청도 울진 등지에 사는 상인, 생원 등 다수에게 포교를 실시하여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그가 경상북도 지역에서 포교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마북동에 거주하던 시절 집강의 역을 맡고 있었던 사실, 김이서로부터 정조 100석을 빌려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던 점,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이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한다.<sup>12)</sup> 이러한 성과로 최시형은 1863년 7월 경주 이북 즉 경상도 북부 지역의 교도를 총괄하는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에 임명되었다.<sup>13)</sup>

동학은 교도의 총 집회소로 중앙에 법소(法所), 각도에 도소(都所)를 두었는데 강원도 지역에는 홍천의 차기석(車基錫)과 인제의 김치운(金致雲) 등이 도소를 담당하였다. 포명을 받았던 관동대접주 이철우와 차기석, 김치운 등은 강원도 동학교도의 지역책임자였다. 따라서 동학 제2교조인 최시형이 강원도 지역에서 포교를 전개하기 전 이미 동학이 전래된 사실은 양양 사람들이 최시형을 초빙한 사실<sup>14)</sup>과 1864년 3월 10일 최제우가

被告 朴允大年五十三 忠淸北道永同郡 平民被告 宋一會年三十三(『동학농민혁명 자료총서』光武十一年七月二十六日承 法部訓令 亨야갓周原案)

11) 『高純宗實錄』 고종 37권, 35년(1898년, 무술/대한 광무(光武) 2년) 7월 18일(양력)

12) 趙成雲, 앞의 논문, 2000, pp.7~8.

13) 慶翔適來久與相談 特定北道中主人(『崔先生文集道源記書』, 『東學思想研究資料集』壹, 亞細亞文化社, 1979, pp.182)

14) 1869년(포덕 10) 기사년 2월에 신사(神師)가 영양(英陽) 일원산(日月山)에 은거할 때 양양 사람 최혜근(崔惠根)·김경서(金慶瑞)가 와서 신사(최시형 교조)를 뵈고, 생 등이 입도한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도 닦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찾아왔나이다 하거늘, 신사가 그 연원을 물을 때, 공생(孔生)이라 칭하는 사람이 입도를 권하는 말에 의하여 도에 참여한 이래 삼칠자(三七字)를 외울 뿐이요, 절차를 알지 못하나이다. 신사가 그 정상을 가상히 여기시고, 도의를 순순히 설명한 즉, 두 사람이 신사께 향하여 양양 포덕을 역설하고, 기어이 배왕하기를 간곡히 청하거늘 신사 또한 그 방면에

대구감영에서 ‘卞世思亂 暗地聚黨’이라는 혐의와 사술(邪術)로 정학(正學)을 어지럽힌다는 죄명으로 처형당한 후 그의 22명의 제자 중에 한사람인 이경화(李慶化)가 영월 소밀원으로 유배되면서 장기서(張奇瑞)에게 동학을 전파한 사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최시형은 양양에서 1년 여간 체류하면서 동학에 대한 포덕을 주관하였는데, 포교의 주 대상은 이보가 앞서 동학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던 양양지역의 동학교도 최혜근·김경서, 그리고 30여호에 달하는 양양주민들이었다. 양양지역에서 1년여 이상 은거와 포덕생활을 병행하였던 최시형은 영월에 살았던 이필제(李弼濟)가 도인 권일원(權一元)을 보내 면회를 청하자 영월에서도 1년 동안 머물렀다.<sup>16)</sup> 이때 영월에서 1년간 체류하면서 각 도인들을 모아 접인접물(接人接物)의 설법까지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동학 전래는 매우 초보적 수준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본격적인 동학의 사상과 이념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포교와 교단의 조직 구성에 열정을 쏟던 동학포교 10년째인 1869년 이후로 보아야 한다. 특히 1870년 10월 최제우의 부인 박씨와 두 아들 세정, 세청 그리고 세 딸이 양양의 동학 교도 공생의 주선으로 영양에서 영월 소밀원으로 이주하고, 1871년 교조신원운동으로 관병의 추격을 받던 최시형이 영월 소밀원으로 피신하면서 강원 내륙지역은 동학 재건과 비밀포교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동학이 창도된 1860년부터 1871년 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되기 전까지 동학의 주요 활동 무대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지역이었으며, 이후 조정의 탄압을 받으면서 위기에 봉착한 동학의 주도세력들이 강원도 양양, 영월, 정선, 인제 등지로 피난하면서 교단 조직 정비, 경전 간행, 그리고 의례의 창제 등을 통해 동학의 재건과 비밀포교활동의 기반을 다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제우 일가와 최시형, 그리고 상당수 강원도 사람들이 조직 재건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유의한지 오랜지라, 박춘서(朴春瑞)를 데리고 양양을 향하여 30여호의 포덕을 얻고, 그 이듬해인 1870년 경오년에 이르기까지 양양 산중에 은거하사 치성과 송주(誦呪)로 일을 삼더니, 10월에 들은 즉, 공생이라는 자가 상주 동관암(東關岩)에 이르러 대신사의 가족을 달래어 영월 소밀원(蘇密院)으로 옮기게 하였다 하는지라 신사 홀로 근심하시되, 세정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험난한 이때 사람의 말을 함부로 좃으니 반드시 장래가 좋지 못하리라 염려하였으나, 이미 지나간 일이라 아주 후일을 기다리기로 하시었다.”(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15) 韓承奉, 『江原道 麟蹄 地域 崔時亨의 行蹟과 東學 記念物』,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공통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 p.14.

16) “신미 오월에 이필제(李弼濟)이 다시 도인 권일원(權一元)을 보내어 신사에게 면회하기를 청한바, 무릇 5회에 이른지라 신사 또한 거절하기 어려워 친히 영월을 가셔서 이필을 보니, 영월 직곡리 박용걸(朴龍傑)인지라, 신사 밤을 타서 가만히 직곡리에 들어가 박용걸가에 이른 즉, 박용걸의 부친이 밖에 나와 맞아 상좌에 앉히고 미리 준비하였던 저녁 밥을 진공(進供)한 후에...”(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한편 인제지역에서의 동학교도들의 활동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872년 정월 영월 소밀원에서 대신사의 가족을 전부 인솔하고 급히 도망하여 영월 박 옹걸 집에 들렀다가 다시 인제군 남면 무매리(舞梅里)에 이르렀고, 김병정(金秉鼎)의 안내로 동사둔(東沙屯)·영춘(永春)·의풍(義風) 등지를 지나 강수와 전성문(全聖文)이 함께 정선군 무은담(霧隱潭) 유인상(劉寅常) 집에 이르러 대신사의 제3녀와 세정의 처가 장춘보(張春甫) 집에 기거하다가 인제의 감옥에 수감되었다
- ② 1872년 5월 최제우의 장자 세정이 인제 귀둔리에서 체포되어 양양관아에 투옥되었으며, 그는 그해 5월 12일에 양양의 감옥에서 장사(杖死)되고 김덕중·이일여(李逸汝)·최혜근 등은 양양지역 동학교도들 역시 형을 받음
- ③ 1876년 4월 5일 인제 남면의 동학교도 김연호(金演鎬)의 집에서 교조인 최제우의 득도 향례를 지냈다.
- ④ 1879년 3월 최시형이 강수(姜洙), 김연국(金演局)과 함께 영월, 인제, 흥천 등 지역을 순회하며, 포교 활동을 펼쳤으며, 이해 4월 인제 갑둔리에 왔으며, 11월에는 조시철의 집에서 치성식을 거행하였다.
- ⑤ 1880년 3월 인제군 김현수 집에 이르러 인근 도인들과 함께 기도식을 거행하였으며, 4월에는 대설법을 진행하였고, 11월 12일에는 조시철(趙時哲) 집에서 치성식을 하였다. 한편 5월 9일 갑둔리 김현수의 집에서 동경대전 간행소를 설치하였으며, 한 달 뒤인 6월 14일 간행을 완료하여 경진판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방시학(方時學)의 집에 유적편집소를 설치하여 자료를 수합한 후 그 자료는 정선 유시헌 집에 보관토록 하였다.
- ⑥ 1888년 인제군 김연호(金演鎬) 집에 피신하였다가 포졸들의 추적이 심해 杆城郡 金河圖 집에 거처를 옮겼다.
- ⑦ 1890년 7월에 최시형은 양구·간성 등 제군을 순회하였고, 인제군 남면 성황거리 이명수 집에 이르러 마침 새의 무리가 뜰 나무에 앉아 우는 것을 보시고 이르기를 "저 역시 시천주의 소리라 묘하다. 천도의 영묘일에 간섭치 않음이 없도다. 위로 일월의 큼과 아래로 미진의 적음도 다 천도의 영광이니라. 이제 우속이 산에 빌며 물에 빌어 복을 구하는 자 또한 이힘이 없지 아니함은 이 또한 천지의 영묘가 조임치 아님이 없는 증거니라. 그러나 화와 복은 결코 외물에 있는 것이 아니요, 자심(自心)으로 지조(自造)하는 것이니, 고로 마음은 화복의 기틀이며 천주의 권능이니라." 하였다.

이상은 동학의 제2대 교조 최시형이 1869년(포덕 10)부터 1890년(포덕 31)까지 강원도 인제지역에서의 주요행적과 포교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위의 활동들은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인제를 비롯한 강원도 일대에서 최시형과 그의 도인들이 전개하였던 포교활동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교권을 확보한 최시형은 포교활동과 교리 체계화 내지는 성문화를 위한 경전 간행의 적소(適所)로 인제지역을 매우 중히 여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1894년 이후

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풍조가 심화되자, 신흥종교인 동학은 종교적인 신앙을 넘어서 사회개혁·외국세력의 배척을 포함하는 농민들의 사상을 뒷받침하였다. 광범위한 민중계층을 결집시켜 흑세무민의 죄로 처형당한 교조 최제우의 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1892년(고종 29) 12월 제2대 교조 최시형의 통문에 의하여 삼례도회소(參禮都會所)에 모여 동학의 탄압과 서학과의 혼동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신원운동은 실패했고, 1893년(고종 30) 4월 26일 2만여명의 전국 동학교도들은 보은에 모여 ‘척왜척양창의’의 5자를 새긴 깃발 아래 시위를 벌였다. 당시 고부군수 조병갑은 만석보의 수세 등 부당한 세금을 받아 착복했다. 이에 분격한 농민동학교도들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1894년(고종 31) 2월 15일 관아를 습격하여 세미를 빈민에게 나누어 주고, 만석보의 저수지를 파괴하고 해산하였다. 다시 4월에는 ‘보국안민’을 내걸고 전봉준을 총대장, 김개남·손화중을 장령으로 삼아 백산으로 진격함으로써 농민들과 합세한 동학교도들의 사회개혁을 위한 저항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봉기는 결국 1894년 5월 전주 화약을 통해 잠잠해졌으나, 이후 청일전쟁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정부의 미온적인 해결책으로 재점화되었다.

1차 동학농민운동이 진행되었던 시기 최시형의 역할은 다른 지역의 동학도 지도자들에 비해 미미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동학당정토대(東學黨征討隊)의 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각 지방에는 각각 거괴(巨魁)라고 하는 자가 있어서 부하를 통솔하지만, 거괴들을 통솔하는 대거괴(大巨魁)는 없다. 최시형은 동학도로 말할 때는 곧 대거괴이다. 그러나 소란 통에 미루어 살펴 볼 때 대거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충청도의 서부와 전라도에서는 별로 최시형의 지휘를 받은 자가 없기 때문이다(이 지방은 전봉준·김해남·손화중·송문수 등의 부하이다.) 그리고 각 거괴는 각자의 의견에 따라 각 지방에서 기포하여 자기 의사를 결행하려고 한 것 같다.”<sup>17)</sup>고 하였다.

그러나 2차 동학농민운동은 시작되었을 때에는 1차와는 상황이 달랐다. 강원도 영

동에서 9월 4일, 영서에서는 10월 21일에 일어났고, 영월·평창·정선·원주 등지에서도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영월·평창·정선 등은 당시 강릉과 양양의 동학교도와 힘을 합치는 형세를 이루었다. 영월·평창·정선 등지의 동학교도가 합세하여 쳐들어간 곳은 강릉지역이었다. 강릉지방의 향토지인 『임영지』에 의하면, "9월 4일에 영월·평창·정선에서 동학군 수천명이 강릉으로 쳐들어 왔으며, 이를 막기 위해 이회원 강릉부사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싸웠으며, 죽음을 당하고 부상당한 동학군이 많았다. 또 강릉지역의 義旅(反東學의 의병이라 하여 그렇게 부른다) 지도자가 여러 사람 참여한다. 『임영지』에 기록된 상황으로 보아 강릉은 당시 유림의 본거지였고, 반동학군을 지휘한 사람은 이회원(李會源)이었다. 이회원은 동학혁명군 진압에 공이 많았다 하여 조정에서 강릉부사의 관직을 내렸다. 당시 『동학당정토인록(東學黨征討人錄)』에 수록된 주요 인사들은 이천군(伊川郡)의 순무사였던 이언묵(李彦默)과 김도환(金道煥), 삼척의 김헌경(金憲卿), 강릉의 원세중(元世重)·최돈민(崔燾珉)·최지집(崔之集)·박동의(朴東儀)·강주서, 양양의 김익제(金翼齋)·노정수(盧鼎秀)·장혁주(張赫周)·김준수(金僑秀)·최주하(崔舟河), 황성의 정준시(鄭駿時), 평창의 김충근(金忠根), 원주의 이철리(李哲利) 등이었다. 영월·평창·정선·강릉 이외에도 삼척·양양 등지에서도 일어났다.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에 기재된 강원도 반동학군 인물들은, 관동소모장 김태진(金太鎭), 이천 장교 이언묵(李彦默)·이시점(李時漸), 관동소모진군관 이시영(李時榮)·황기정(黃基鼎), 원주 진사 이철화(李哲和), 평창의 김충근(金忠根), 양양의 유학 이국범(李國範)·이석범(李錫範), 강릉 민보장(民堡長) 이수해(李守海), 강릉의 수교(首校) 이진석(李震錫), 평창의 군교(軍校) 문도순(文道淳) 등이었다.

원주·황성·홍천 등지에서의 동학혁명군의 활동은 『갑오실기(甲午實記)』에 기록되어 있다. "관동지방에서도 역시 비적들이 출몰하고 있고, 황성 현감 유동근이 토포사를 겸했다."(關東亦有匪出沒云 橫城縣監柳東根既兼討捕使)라고 했으며, "소모관 맹영재가 첩보를 올리기를 원주의 비적 두목은 김화보."(召募官孟英在牒報原州匪金化甫)라고 하였고, 그리고 "소모관 맹영재는 첩보를 올렸다. 지난 10월 21일 행군하여 홍천 장야촌에서 비적 30여명을 살해하고, 다음날 서석면으로 향했으며 비적의 무리는 1천여명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17) [東學黨 騷亂原因 調査結果 報告書 送付의 件] 1895년 5월 13일, 後備步兵 獨立 第19大隊長 南小四郎, 特命全權公使 伯爵 井上馨 殿

한편 원주·횡성·홍천 등지에서 동학군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동학교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869년에 동학교가 강원도 내에 전파된 후부터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25년 동안 제2대 교조 최시형에 의해 강원도 일원이 동학교 포교의 근원지가 되었다. 제1대 교조 최제우의 신원운동 때에는 관동대접주로 이철우가 임명되었고, 홍천에 차기석, 인제에 김치운 등으로 본포(本包)를 설치하게 하여 도소의 접주로 임명하였던 것이다.

동학농민운동 당시의 각 지역 기포(起包)와 인수 또는 포수를 보면 강원도내에는 원주에 2명, 횡성에 1명, 홍천에 2명으로 총 5명으로 되어 있다. 강원도의 기포는 원주·횡성·홍천에 설치되었고, 인근지역인 경기도의 여주·이천·양근·지평·광주 등지는 강원도의 기포와 연결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동학농민 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도 제2대 교조 최시형은 강원도에서 포교를 계속하였다. 『천도교창건사』에는 “갑오년(1894) 12월 24일로 끝마친 동란의 여파로 나라에서 여당을 진멸코자 하여, 우선 그 괴수되는 신사를 체포코자 각지에 수사망을 치고 천하에 명하여 크게 수색하는 지라, 신사 손병희, 손병흠, 손천민, 김연국과 더불어 홍천에 잠유하다가, 을미년(1895) 정월에 인제군 최영서(崔永瑞) 집에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일러 가로대, 이때 두령된 자 가히 한 곳에 구유하지 못할지라 하시고…”라고 했다. 최영서 집에서 최우범(崔禹範)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다시 원주 수례촌(水禮村)으로 옮겨 숨어서 포교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1898년(포덕 39) 1월 3일 원주 전거언리(前巨彦里)에서 포교하였고, 지평 갈현 이강수(李康洙) 집으로 옮겼다가, 다시 홍천군 서면 오창섭(吳昌燮) 집으로 옮겨 월여를 포교하게 되었다. 2월 그믐에 여주 임학선(林學善)의 주선으로 원주군 송동(松洞)으로 옮겼으나 이곳에서 최시형은 체포되었다.

대를 이은 손병희는 섬배(지금의 원주군 소초면 의관리 윗섬배) 이화경(李和卿) 집에 머물렀으며, 김연국은 옥직리(지금의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옥지기)에 은거하였다. 의암, 구암 등 최시형의 수제자들은 송골과는 10리 안팎의 지역에 피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피신처가 홍천의 접주였던 오창섭의 집과 원주의 접주였던 이화경의 집이었다. 이때까지 원주와 홍천의 동학교 수령들이 자기 고장을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 동학교도들은 1919년 기미만세운동의 지도자가 되었고, 독립정신을 북돋우는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동학교도 즉 천도교도와 기독교도들이 합세하여 기미만세운동을 일으켰는데, 기독교들의 일부는 천도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했다.

### 3. 인제지역 동학 유적지<sup>18)</sup>

인제군 남면은 1872년 이후 동학의 포교활동 중요한 근거지라고 할 수 있다. 최시형이 1869년 3월 최희경, 김경단 등의 주선으로 필묵상 박춘서를 대동하고 양양 지역을 순회하면서 포교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양 인근 지역인 인제, 거진 등지에도 순회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 사실이 기록으로 전하지 않기에 유추만 가능한 실정이다. 기록상으로 그가 인제와 첫 인연은 맺은 시기는 1872년으로 교조신원운동으로 쫓기다가 영월 소밀원에서 은거하고 있던 최제우의 일가와 함께 인제군 남면 무매리로 잠시 피신했을 때이다. 이때 그는 무매리 김병래의 집에서 최제우에 대한 조난향례를 행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최시형이 인제지역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한 시점은 1871년 3월 영해교조신원운동의 실패로 최제우의 가족이 피신했던 영월 소밀원에 잠시 있다가 인제지역으로 피신처를 옮기면서이다.

한편 남면 느릅정리와 갑둔리와 이웃 한 성황거리는 최시형이 동학혁명 이후 약 1년간 피신했던 곳이며, 기린면 귀둔리는 최제우의 장자 세정이 피신했다가 양양관군들에게 체포되었던 곳이다. 체포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신미년(1871) 9월에 사형(士衡: 世貞)은 양양의 김덕중(金德仲)의 집에 분산하여 살다가 10월 그믐에 인제 이둔리(耳屯里)로 옮겼다. 임신년(1872) 정월에 세정이 양양 관아에 체포되었는데 선생[최시형]이 이 소식을 듣고 사모님(세정의 처)을 모시고 정선 싸내촌[米內村]으로 옮겼다고 한다.

세정은 16세 때부터 천제를 지내며 목검으로 검무를 추면서 수행하였으며 수운 순도 이후에는 영월, 양양, 인제 들지로 피신행을 하면서 지역 교인들이 지도하기도 하였다. 특히 1870년 영우리 소밀원에 피신했을 때에는 그 지역 교인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으며 1871년 이후 영해교조신원운동 실패로 동학이 관으로부터 탄압을 받자 양양, 인제 등지로 거처를 옮겨 가면서 수운의 적통과 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실질적인 2대 교조 역할을 수행하였던 최시형 역시 장자의 은신처인 인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신사에 대한 각종 의례를 봉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업적을 정리하는 한편 동학의 교리를 서책화하기 위해 유적편집소와 간행소를 설치하고 경전을 간행하였던 것이다.

1894년 9월 18일 최시형은 청산 문바위골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총기포령을 내린 후 임실 조항리 등지에서 동학군을 지휘하는 등 수 많은 고초와 동학군의 투쟁을

18) 본 장은 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9-10, 「동학의 문화유적 순례Ⅱ(강원지역)」, 2001, pp.349~390과 韓承奉, 앞의 논문, 2011, pp.50~64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기에 별도로 각 부분에 대한 註는 생략함

몸소 지켜보고 눈물지은 지 3개월만인 같은 해 12월 24일 의암 손병희가 이끌던 동학군이 충주 외서촌 되자니에서 전투를 치를 때 손병희를 비롯해 부하 두령들을 불러 놓고 “사태가 이쯤 되었으니 각자 흩어져서 피신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런 후 그는 관군의 포위망을 뚫고 손병희, 손병흠, 손천민, 김연국 일행과 함께 흥천에 잠시 머문 후 1895년 정월에 인제군 느릅정이에 있는 최영서(崔永瑞)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sup>19)</sup> 이후 약 1년 정도 이곳에 머물다가 1895년 12월 5일 원주 치악산으로 은신처를 옮겼다가 체포되었다.

최시형이 인제 느릅정이를 피신처로 택한 까닭은 이곳이 1880년 동경대전이 간행된 곳이며, 1차 동학혁명 당시 이곳에서는 기포를 하지 않았기에 상대적으로 관의 감시가 덜하였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짐작된다.<sup>20)</sup> 그러나 이 두 이유도 타당하나 첨언하면 그가 1870년대 주로 이곳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하면서 상당히 교인과 교세를 넓혔고 따라서 자신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으로도 보이며, 또 본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첩첩산중인 이 지역 곳곳에 교인들이 살고 있었기에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피신처를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4. 『동경대전』의 간행과 의의

『동경대전』은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가 지은 글들을 모은 것으로 1880년 경진년 판본을 시작으로 이후 여러 번 중간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1883년 목천 지역에서 간행된 목천판, 1888년 인제지역에서 중간된 무자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목천판이나 무자판<sup>21)</sup>은 모두 인제군 남면 갑둔리에서 간행된 경진판을 저본으로 하였다.<sup>22)</sup> 이 3개의 판본 외에도 다수의 동경대전이 간행된 사실이 확인된다.<sup>23)</sup>

동경이란 말이 동학의 경전이란 뜻이며, 대전이란 이러한 동학의 경전을 다 모은 큰 책이란 의미이다. 『동경대전』의 구성은 문을 앞세워 포덕문, 논학문을 차례로 실었다. 이어 축문, 주문, 등 동학을 닦는데 필요한 의식과 수도에 요긴한 글을 배치하였고, 그

19) 布德 36年(1895) 乙未 正月에 神師 麟蹄郡 崔永瑞家에 潛居하사 孫秉熙, 孫秉欽, 孫天民, 金演局으로부터 道理를 講히시다.

20) 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9·10, 「동학의 문화유적 순례Ⅱ(강원지역)」, 2001, p.359.

21) 무자년(1888년) 판본에 수록된 내용은 布德文, 論學文, 修德文, 不然其然, 祝文, 立春詩, 絕句, 降詩, 座箴, 和訣, 歎道儒心急, 訣, 偶吟, 八節, 題書, 詠育, 筆法, 通文, 通論 등이다.

22) 표영삼, 「神師 최시형의 생애」, 『동학사상연구자료집』, 열린문화사, 2002, p37.

23) 韓承奉, 앞의 논문, 2011, p.31.

다음으로는 시문을 배치하였다. 또 동학의 위대함과 주문의 위력 등을 나타낸 절구, 강시를 싣고 그 다음에는 좌잡을 싣어 도를 닦는 요체를 읊은 시를 싣었고, 글 부분에는 통문이나 통유와 같은 의식의 글을 싣었다.<sup>24)</sup>

이처럼 교조 최제우는 동학과 관련된 가사나 포덕문을 지었으나 경전을 간행한 인물은 2대 교조인 최시형이다. 동학의 기본 경전인 『동경대전』은 1880년 강원도 인제군 갑둔리 김현수 집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1880년 경전을 간행하기 전 이미 최시형은 경전 간행의 뜻을 가지고 자료를 수합하고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최시형은 경전 간행 봉고식에서 “선생의 문집 침자(鋟梓)를 경영한 지 한해가 지나 이미 오래구나! 지금 경진년에 나와 강시원, 전시황, 및 여러 사람들이 장차 刊板을 경영하려고 發論하니 각 접중이 다행히도 나의 의론과 같아 刻所를 인제 갑둔리에 정하게 되었다. 준공하는 일이 뜻과 같아 비로소 篇을 이루니, 이로써 선생님의 도덕을 밝히게 되었다. 이 어지 기쁘고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한 말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경전의 간행 과정에 대해 학계에서는 최시형의 구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口誦說<sup>25)</sup> 필사된 원본이 최시형에게 전해져 퍼냈다는 原本傳來說, 구송설과 원본 전래설을 절충한 折衷說 등이 있다. 이처럼 학설이 나누어져 있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 경전의 자료가 구축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소개되지 않는 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만 경전의 간행은 교조 최제우 사망 이후 그의 교서를 정리할 필요성, 교세의 확장, 그리고 구전으로만 동학을 포교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880년(포덕 21년) 2월 신사는 치성식을 김연석(金演錫) 집에서 행하고, 3월 10일에 대신사의 기제식을 목제(木第)에서 거행하였으며, 4월 5일에 대신사의 향례를 마치고, 5월에 신사 경전간행소를 인제군 갑둔리 김현수 집에 설치하였다. 원래 대구 참변 후에 대신사의 저술한 책들이 모두 화재로 소실되어 일문일자도 살필 수 없었기에 신사가 친히 수집하였다. 신사는 본래 글을 기술치 못하였기에 경전을 친히 암송한 후에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쓰게 하고, 개간한 지 1개월 만에 완성하였다. 이때 경전을 간행함에 있어서 경전 간행의 조직을 구성<sup>26)</sup>하였고, 아울러 재원은 각 접의 후원으로 이루어 졌

24) 정재호, 「동학경전과 동학가사 연구」, 『동학연구』8, 한국동학학회, 2001, pp.27~59.

25) 趙成雲, 앞의 논문, 2000, p.12.

26) 동경대전 간행 조직과 조직원 인명은 다음과 같다. 所長 崔時亨, 監印 姜時元, 全時晄, 校監 全時奉, 沈時貞, 劉時憲, 司接 黃孟春, 趙時哲, 申時永, 司財 韓鳳振, 洪時來, 辛時一, 金鎮海, 李廷鳳, 司直 張亨道, 金永洙, 張秉奎, 李普慶, 司印 沈遠友, 崔錫夏, 全允權, 司書 金世仁, 司餉 張興吉, 金寅相, 金孝興, 李千吉, 司供 李貴祿, 姜基永(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9-10, 「동학의 문화유적 순례Ⅱ(강원지역)」, 2001, pp.353~354)

는데, 상주의 윤하성(尹夏成)이 40金, 정선집에서 35緡, 인제집에서 130金, 청송집에서 6緡를 출연하였다. 이처럼 후원금의 상당액이 인제집에서 충당된 사실로 보아 당시 인제지역에 동학교도들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듬해 포덕 22년(1881) 6월에 신사는 다시 개간소를 충북 단양군 남면 천동(泉洞) 여규덕(呂圭德) 집에 개설하고, 조선문가사(朝鮮文歌詞) 8편을 암송하여 간행토록 하였으니, 이것이 『용담유사』이다. 그리고 포덕 24년(1883) 2월 신사는 다시 간행소를 충청도 목천군 내리 김은경(金殷卿) 집에 설치하고 『동경대전』천여 부를 간행하여 각 포에 보급하였으며, 이때 도운(道運)이 충청·경기에 파급하여 포덕이 날로 융성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동학교의 경전은 강원도 인제에서, 그 다음에는 충북 단양에서, 이어서 충남 목천에서 발간되어 포교가 용이하게 되었다. 동학교의 교세확장과 경전의 발간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5. 맺음말

1861년 동학에 입교한 최시형은 교조 최제우가 처형당한 후 단절되다시피 했던 동학교단을 재건한 인물이다. 또한 재건과정에서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강원도를 선택하였으며, 특히 인제지역은 그 중에서도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강원도 또는 인제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택한 까닭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정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다만 1869년부터 1894년까지의 여러 정황은 결론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황의 첫째, 교조신원운동 이후 교조 최제우의 일가가 영월 소밀원, 인제 귀둔리 등지에 은거하였던 사실, 둘째, 도통을 계승한 최시형이 교조신원운동 이후 피신하면서 교조의 일가를 영월, 인제, 정선 등지로 피난시키면서 도통의 적통을 유지하려고 한 사실, 셋째, 가계도상 교조 최제우의 도통을 이을 수 있었던 장자 세정이 인제 귀둔리에 머물렀고, 실질적인 2대 교조 역할을 수행하였던 최시형이 교조 최제우를 위한 득도의례, 치성제, 조난향례, 기도식 등 여러 형식의 의례를 장자가 살고 있었던 인제지역을 중심으로 거행한 사실, 넷째, 교조신원운동 이후 관군을 추격을 받던 동학교도들에게 있어서 지리적으로 인제군 남면 일대가 피신의 적합처로 활용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 지역에서 교세가 비밀리에 확대되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교조의 처형 이후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급속도로 와해되었던 동

학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그의 역할은 동학과 천도교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점에서 인제가 동학의 재건지라고 할 수 있다.

1880년 강원도 인제군 갑둔리에서 교조 최제우의 설법을 정리하여 편찬한 경진년판 『동경대전』은 최초로 공간(公刊)된 동학의 교리서이다. 다만 현재 경진년 판본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 그러나 경진년인 1880년 강원도 인제지역에서 편찬된 『동경대전』은 현재 전하고 있는 1883년 계해년 간행된 무자판, 그리고 천도교서, 천도교사, 천도교창건사, 천도교경전 등 여러 판본의 저본(底本)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1880년 최시형이 인제군 갑둔리에 경전간행소를 설치하고 인쇄를 하였던 사실은 그 자체가 매우 역사적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전하고 있는 모든 동학 관련 경전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연유는 인제에서 경전간행소를 설치하고 경진년 목판본을 간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 인제 “東經大舍” 간행터 비정 및 정비 방안

유 재 춘 (강원대 사학과 교수)

- |                  |              |
|------------------|--------------|
| 1. 머리말           | 3. 유적지 정비 방안 |
| 2. “東經大舍” 간행터 비정 | 4. 맺음말       |

## 1. 머리말

1860년(철종 11) 최제우(崔濟愚)가 창도한 동학은 급격히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동학의 교세가 날로 커지자 정부에서는 동학도 서학과 같이 민심을 현혹시켰다고 하여 포교를 금지시켰고, 교조(敎祖) 최제우는 제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1864년 봄, 대구감영에서 혹세무민하였다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하여졌다. 이후 동학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되면서 동학교도들은 각처로 은거하면서 종교생활을 하거나 포교를 계속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 강원도 지역은 인적이 드문 곳이 많기 때문에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을 비롯한 동학의 주요 인물들이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하며 포교 활동을 하였다. 이 시기 강원지역의 영월, 평창, 정선, 원주, 횡성, 홍천, 인제, 양양 등지에서 특히 활발하게 포교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강원지역에서 포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요 가르침을 정리한 경전의 인간(印刊)이 필요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이것이 강원도 인제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동학 포교 활동에서 인제지역이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히 인제지역에서 1880년 간행된 이른바 “경진판(庚辰版)” 동경대전은 동학 창도 이후 최초로 간행된 경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동경대전 인간(印刊)이 그와 같이 큰 의미를 갖는다면 그 경전이 간행된 장소 역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고에서는 그간 알려진 인제군 남면 갑둔리의 동경대전 간행터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sup>1)</sup> 이곳에 대해

1) 동경대전 간행터는 이미 1997년 7월 인제군청에서 강원도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면서 인제군 남면 갑둔리 341번지를 동경대전 간행터로 지목하였고, 이후 한승봉의 「인제지역 동학농민운동 유적지 연구」(한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 『제20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 논문집』, 2010)와 「江原道 麟蹄 地域 崔時亨의 行蹟과 東學 記念物」(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에서도 모두 갑둔리

적절히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東經大全” 간행터 비정

1864년 동학 교조 최제우가 처형된 이후 최제우의 가족과 최시형을 비롯한 주요 제자들은 주로 강원도 지방에서 은거하면서 활발하게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강원도 지방이 제2의 주요 동학 포교지가 되었다. 특히 인제 지역의 경우, 1879년경에는 대치제(大致祭)를 운영할 만큼 교세가 확장되어 있었다. 그 해 12월 1일 최시형은 수단소(修單所)를 방시학(房時學)의 집에 설치하고 최제우의 도적(道蹟)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한 수단유사(修單有司)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道布德主：崔時亨  
道次主：姜時元  
道接主：劉時憲  
修正有司：辛時永  
校正有司：辛時一  
都所主人：房時學  
監有司：崔箕東·安教一  
書有司：安教常  
紙有司：金源仲  
接有司：尹宗賢  
收有司：洪時來·崔昌植  
冊字有司：辛潤漢·安教佰  
輪送有司：洪錫道·安教綱

1880년 5월 9일에 동경대전(東經大全)을 각판(刻板)하기 위한 각판소를 설치하였던 것을 보면,<sup>3)</sup> 이때 수단소(修單所)는 동경대전을 편찬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80년 5월 9일 인제군 남면 갑둔리 김현수(金顯洙) 집에 각판소를 설치하고 11일부터 각판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유사(有司)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sup>4)</sup>

---

341번지를 동경대전 간행터로 지목한 바 있다.

2) 윤석산 역주, 『초기 동학의 역사 道源記書』, 신서원, 2000, 265~266쪽.

3) 윤석산 역주, 『초기 동학의 역사 道源記書』, 신서원, 2000, 269쪽.

4) 위와 같음

都 廳 崔時亨  
監 役 姜時元  
          全時晄  
校 正 沈時貞  
          全時奉  
          劉時憲  
直 日 張道亨  
          金文洙  
          張炳奎  
          李晋慶  
接有司 金錠浩  
          辛時永  
          黃孟基  
          趙時哲  
收有司 韓鳳辰  
          洪時來  
          辛時一  
          金鎮海  
          李廷鳳  
治 板 金館浩  
鋟 梓 沈遠友  
          崔錫夏  
          全允權  
運 糧 張興吉  
          金寅相  
          金孝興  
          李千吉  
書有司 全世人  
供 饋 李貴綠  
          姜基永

간행사업은 6월 14일에 완료되었고, 15일에는 제사를 지냈다. 또 이때 비용을 부담한 사람은 상주(尙州)의 윤하성(尹夏成) 40금(金), 정선집중(旌善接中) 35민(緡), 인제집중(麟蹄接中) 130금(金), 청송집중(靑松接中) 6민(緡)이다. 이때 최시형은 간행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아아, 선생의 문집(文集) 침자(鋟梓)를 경영한지 한 해가 지나 이미 오래구나! 경진년(庚辰年)에 나와 강시원(姜時元), 전시황(全時晄) 및 여러 사람들이 장차 간판(刊板을)

경영하려고 발론(發論)을 하니, 각 집중(接中)이 다행히도 나의 의론과 같아 각소(刻所)를 인제 갑둔리(甲遁里)에 정하게 되었다. 준공하는 일이 뜻과 같아 비로소 책을 이루니, 이로써 선생님의 도덕을 밝히게 되었다. 이 어찌 기쁘고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각 집중에서 정성스러운 힘과 비용으로 쓸 재물을 낸 사람은 특별한 별록(別錄)에 그 공을 논하여 차례로 기록하여 쓴다.

경진년 중하(仲夏) 도주(道主) 최시형(崔時亨) 삼가 기록하노라.<sup>5)</sup>



인제군 남면 갑둔리의 위치  
(동경대전 간행터 비정지를 중심으로 : daum 지도 재편집)

5) 『崔先生文集道源記書』 庚辰年.

인제에서 동경대전이 간행된 사실은 간행을 마친 후 최시형이 쓴 글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갑둔리에서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는 1899년경 집필된 것으로 알려진 『해월선생문집(海月先生文集)』에,

「경진(庚辰) ... 6월에 이르러 나와 강시원(姜時元), 전시황(全時暘), 전시봉(全時鳳), 김시명(金時明)이 인제 김현수(金顯洙)의 집에 가서 대전(大全) 100부를 간출(刊出)하여 각처에 반포하였는데, 비용은 모두 본읍 접중(接中)에서 담당하였다.」<sup>6)</sup>

이에서 보면 1880년 인제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할 당시의 구체적인 각판소(刻版所)가 김현수라는 교인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 경전을 간행하는 비용을 인제 지역의 동학교인들이 모두 부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판한 장소가 김현수의 집이라는 사실은 1915년에 집필한 『시천교종역사(侍天教宗釋史)』에서도

「경진(庚辰) 5월 12일 신사(神師)께서 선사(先師) 유적(遺蹟)의 인간소(印刊所)를 인제군 갑둔리 김현수(金顯洙)의 집에 설치하고 동경대전의 간행을 시작하도록 명하시었다. 6월 14일에 이르러 마침내 사업을 마치었고, 신사께서 스스로 발문(跋文)을 지어 편단(篇端)에 병합하였다. 이튿날 치제(致祭)를 별도로 마련하여 고유(告由)하였다. ...」<sup>7)</sup>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1880년 간행된 동경대전은 인제 갑둔리 김현수의 집에서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당시 갑둔리에 살고 있던 김현수라는 동학 교도의 집이 현재의 어느 곳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고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기존의 어떠한 기록에서도 김현수의 집터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갑둔리 341번지 터가 동경대전 간행소로 적시되게 된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sup>8)</sup> 1997년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인제군청에 인제 갑둔리 동경대전 간행터를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공문에 첨부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79년 11월에 천도교중앙총부는 사적지를 조사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한 바 있었다. 때마침 김씨(金氏) 문중(門中)에서 선영(先塋)을 참배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김현수(金顯洙)가 살던 집터를 물으니 모두가 똑같이 김현수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며 김현규(金

6) 『海月先生文集』

7) 『侍天教宗釋史』 第八章 遺蹟刊布.

8) 1980년에 발간된 『麟蹄郡誌』나 1996년 발간된 『麟蹄郡史』에서 모두 동경대전 간행 장소를 구체적으로 현재의 어느 곳이라고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았다. 다만 『麟蹄郡史』에서 인제 갑둔리 김현수 가옥에서 간행하였다는 것과 김현수(족보상 金顯奎)가 동학군으로 활동하였다는 것만 후손의 증언을 토대로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顯奎)는 있었으나 김현수는 없었다고 하였다. 갑둔리 341번지의 집은 누가 살던 집인가 묻자 김치운(金致雲)이 살던 집이라고 하였다. 할머니 한 분이 시어머니로부터 들었다며 해월신사가 김치운의 집에 자주와서 여러 날 머물다 갔다고 했다. 이후 여러 차례 현지를 방문하여 일일이 조사하여 보았으나 현 갑둔리 341번지에는 김치운이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이미 1970년대에 천도교중앙총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인제의 동경대전 간행터를 갑둔리 341번지로 비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비정한 것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증언을 한 분들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점이다.<sup>9)</sup> 증언자에 대한 기록이 누락된다는 것은 구술자료 활용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결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갑둔리 341번지로 비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본인이 최근 김현수와 같은 종문(宗門 : 김해김씨)의 김종국씨로부터 직접 구술 채록한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sup>10)</sup> 아무튼 천도교에서 1970년대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1997년 7월 인제군청에서는 인제군 남면 갑둔리 341번지를 동경대전 간행터로 적시하여 도지정 문화재(기념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최근 한승봉의 「인제지역 동학농민운동 유적지 연구」와 「江原道 麟蹄 地域 崔時亨의 行蹟과 東學 記念物」에서도 모두 갑둔리 341번지를 동경대전 간행터로 비정하였다.<sup>11)</sup>

본인은 최근 본 주제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현수의 후손으로 본래 갑둔리에 거주하였던 김종국씨가 동경대전 간행터인 김현수의 집터가 기존에 지목된 갑둔리 341번지가 아닌 그 반대편이라고 증언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반드시 그 분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수소문 끝에 어렵게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종국씨를 만날 수 있었다.<sup>12)</sup> 김종국씨가 증언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인제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할 당시 그 각판소를 제공한 김현수(金顯洙)의 족보상 이름은 현규(顯奎)이며,
- ② 당시 김현수가 살았던 집터는 현재 인제군 남면 갑둔리 341번지(기존에 알려진 사

9) 당시 천도교중앙총부에서 조사하면서 증언자 인적사항을 모두 기록하였지만 인제군청에 보낸 문건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10) 김종국씨는 항렬로 따지면 김현수의 손자뻘이 된다. 인제군 남면 갑둔리에 거주하다가 군부대의 토지매입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현재는 서울 천호동에 거주하고 있다. 1933년생이며, 지금도 時祭 주관 등 門中 일을 맡아보고 있기 때문인지 家系에 대한 사항을 매우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11) 한승봉, 「인제지역 동학농민운동 유적지 연구」, 『제20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 논문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 2010, 210~214쪽; 한승봉, 「江原道 麟蹄 地域 崔時亨의 行蹟과 東學 記念物」,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50~56쪽

12) 2013년 11월 4일 서울 천호동 거주지에서 증언 청취.

진상의 집터)가 맞으며,

- ③ 선조로부터 전해 듣기로, 김현수는 이 지역의 동학교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동학혁명 당시 흥천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전사하였다고 하며
- ④ 김현수의 집터는 그의 직계자손에게 상속된 것이 아니고 그의 사촌에게로 넘겨져 상속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이러한 증언과정에서 특히 김현수의 집터에 대해서는 80세의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지도를 그려 정확하게 표시하여 알려 주었다. 아울러 본인이 인제 갑둔리에 거주할 당시 그곳을 찾아온 다른 분들에게도 직접 가서 똑같이 설명해 주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김종국씨 증언은 이미 1970년대 천도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증언자의 기억력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천도교에서 조사한 내용처럼 김치운(金致雲)이 김현수(金顯洙)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김치운과 김현수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

「이 때 인제도인(麟蹄道人)이 장차 크게 치제(致祭)를 운영하고자 하니 주인과 강시원(姜時元), 김용진(金龍鎭)이 김치운(金致雲)의 집에 가서 제사를 정하여 행하였다. 참석한 자들이 정성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별도로 집사(執事)를 나누어 정하였다. 초헌(初獻) 김계원(金啓元), 아헌(亞獻) 장춘보(張春甫), 종헌(終獻) 김치운(金致雲), 집례(執禮) 이윤희(李允喜), 대축(大祝) 김용진(金龍鎭), 집사(執事) 장희용(張希用) …」

『해월선생문집(海月先生文集)』

인제 김현수(金顯洙) 집으로 전향(轉向)하여 치제(致祭)를 행하였다. 초헌(初獻) 김계원(金啓元), 아헌(亞獻) 장춘보(張春甫), 종헌(終獻) 김치운(金致雲), 집례(執禮) 이윤희(李允喜), 대축(大祝) 김연국(金演局), 집사(執事) 장희용(張希用) …」

위 기록에서 보면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에서는 ‘김치운(金致雲)의 집’에서 제사를 행하였다고 하였고, 『해월선생문집(海月先生文集)』에서는 ‘김현수(金顯洙) 집’이라고 하였다.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대축(大祝) 김연국(金演局)’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다. 그런데 김연국은 김용진(金龍鎭)과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기록에 남아있는 인물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록에서 집주인이 종헌을 맡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 본다면 『해월선생문집』에 ‘종헌(終獻) 김치운(金致雲)’이라고 한 것은 비록 ‘운’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소한 오자라고 보



이는 인제 갑둔리 거주 김해김씨 종문(宗門) 중에 ‘현(顯)’자를 항렬자로 하는 세대의 경우 치순(致順), 치도(致道), 치호(致浩), 치옥(致玉), 치명(致明), 치관(致官) 등 ‘치(致)’자를 사용하여 ‘자(字)’를 지은 사례가 많다.<sup>14)</sup> ‘치운’이라는 이름은 김현수의 자(字)였을 것이다. 김현수의 이름이 족보 기록에 ‘현규(顯奎)’로 기재된 것은 그가 동학 포교활동과 혁명운동의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수많은 의병운동 참여자들 가운데 본명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였으며,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현수와 김치운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없고 이는 앞서 서술한 천도교중앙총부에서 1970년대에 구술증언을 조사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족보의 김현규(金顯奎) 부분에는 자(字)를 기재하지 않고, ‘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勇貞夫人 平昌李氏’라고 되어 있다. 당시 김현수를 주로 호칭하던 자(字)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동학 탄압과 관련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이하 직함을 기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물론 김현수가 실제 서반직 품관을 지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족보의 기재 사항은 다소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전략장군은 종4품이며, 부사용(副司勇)은 서반 종 9품직이다. 행수법(行守法)이 있어서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직책에 임명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큰 격차를 두고 말단직에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더구나 ‘貞夫人 平昌李氏’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략장군의 부인이라면 당연히 ‘영인(令人)’이 정식의 호칭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종합해 보면 인제 남면 갑둔리에 거주하다가 동학에 입도하여 활동한 김현수라는 인물은 김치운(金致雲: 또는 金致云)과 동일인물이며, 김해김씨 족보에는 ‘김현규(金顯奎)’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간에 채록된 김현수가(金顯洙家)의 위치에 대한 증언과 최근 필자가 김현수와 같은 종문(宗門)인 김종국씨로부터 청취한 구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제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기 위해 각판소를 설치한 김현수 가옥은 인제군 남면 갑둔리 341번지로 비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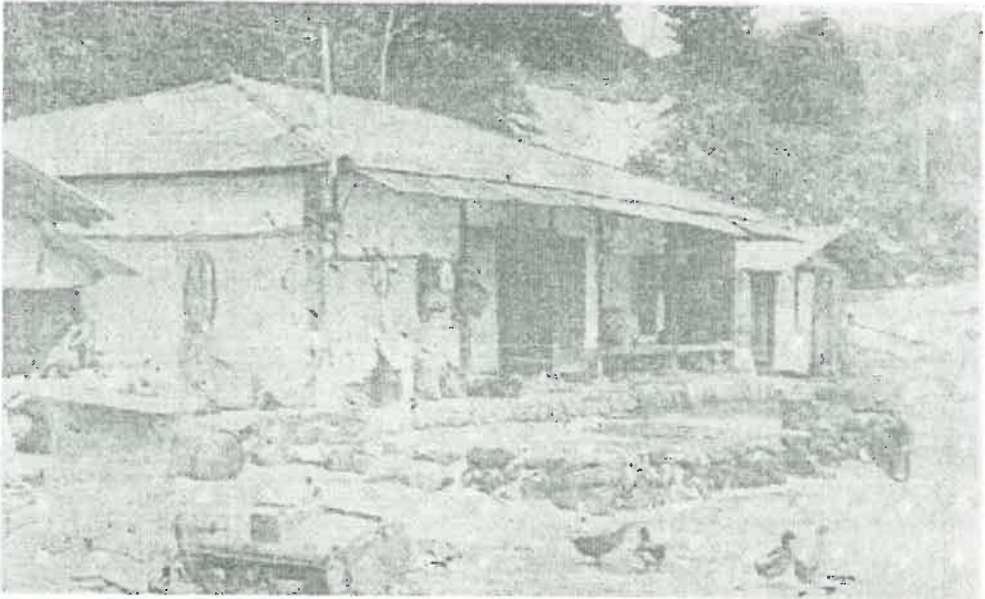
기존에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상에 인제 갑둔리 341번지 부분에 김사첨(金士僉)과 김규운(金奎雲)이라는 성명이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sup>15)</sup> 이들의 가계(家系)와 김현수와 관계가 밝혀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나 이는 또 인제 동학활동과 관련하여 기록에 등장하는 김계원(金啓元: 또는 金桂元), 최영서(崔永瑞), 이중훈(李鍾勳) 등 인제의 동학교인에 대한 연구와 함께 향후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4) 이는 김해김씨 족보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15) 한승봉, 「江原道 麟蹄 地域 崔時亨의 行蹟과 東學 記念物」, 51~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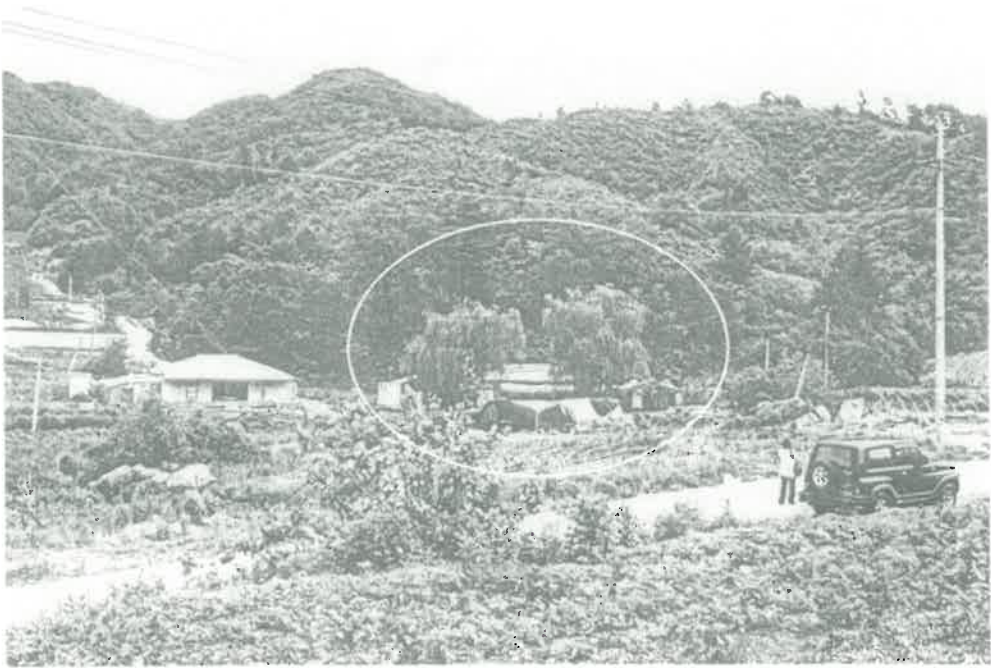
인제 남면 동경대전 간행터 위치도(김현수 가옥터 : daum 지도 재편집)



인제군 남면 갑둔리 동경대전 간행터  
(김현수 가옥터 : 한승봉, 「인제지역 동학농민운동 유적지 연구」에서 재인용)



인제군 남면 갑둔리 동경대전 간행터(김현수 가옥터 : 1993년 3월)



인제군 남면 갑둔리 동경대전 간행터(김현수 가옥터)



인제군 남면 갑둔리 동경대전 간행터(김현수 가옥터)



인제군 남면 갑둔리 동경대전 간행터(김현수 가옥터)



인제군 남면 갑둔리 동경대전 간행터(김현수 가옥터)



인제군 남면 갑둔리 동경대전 간행터(김현수 가옥터 : 2013년 10월)

### 3. 유적지 정비 방안

동학교조 최제우가 순교한 후 동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속에서 강원도 지역을 주요 무대로 동학은 제2의 포교활동을 전개하였고, 교세가 점차 확장되면서 동학 경전인 동경대전 간행을 보게 되었다. 민족종교인 동학의 최초 경전이 간행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으며, 지역사적인 입장에서 강원도 인제 갑둔리에서 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동학이 창도된 이후 민중의 평등의식 제고, 사회개혁운동, 항일민족운동 등 근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역사 사적은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동학관련 유적지에 대한 기념시설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설치되어 있다. 대략적으로 파악한 사항을 종합하면 전라북도 43개소, 전라남도 5개소, 충청남도 9개소, 충청북도 3개소, 경상북도 9개소, 울산·경상남도 2개소 등이다. 주로 동학혁명군의 봉기나 주요 전투지와 관련된 기념시설이 많으며, 또 동학 창도자 수운 최제우를 비롯한 해월 최시형과 같은 동학의 지도자, 혹은 동학혁명운동과정에서 혁혁한 활동을 한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최경선, 김덕명 등 동학군 봉기와 관련된 주요인물에 대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을 각 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市道의 동학 관련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

도별	유적지 기념시설 명칭	소재지	기념시설 주요 내용	문화재 지정 사항	기타
전북 (43)	1 전봉준 生家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당촌 63	전봉준 생가		생가복원(2001)
	2 전봉준 古宅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458		사적 제293호	복원(1974)
	3 전봉준 묘역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고택 옆	전봉준 단비 전봉준장군운명시비	사적 제293호	천안전씨 문중, 묘역정비(1994)
	4 손화중 묘역	정읍시 상평동 음성리			
	5 전봉준 공원	정읍시 쌍암동, 내장산 입구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기념하여 기념탑과 보조탑, 잔디공원		
	6 최경선 묘역	정읍시 칠보면 축현리 산73-4	사발통문석, 봉분 뒤의 11개의 조형물		동학농민군의 영술장
	7 김개남 고택 터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 마을	김개남장군 생가 터 표석		
	8 김개남 묘역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 마을	묘비		
	9 김덕명 묘역	김제시 금산면 장흥리 안정절골	묘비		금구 대접주
	10 덕진공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봉준 장군 동상 김개남장군 추모비 손화중장군 추모비		
	11 최시형 은둔지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새목터			
	12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고창군 구암면 구암리 구수마을 590번지 일원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비, 동학농민혁명포고문비, 기념탑, 농민군 高繩柱 추모비, 동학농민군 훈련장	사적 제406호	
	13 여시파봉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무장창의문 기념비		
	14 백산성 터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산8-1	동학혁명백산창의비	사적 제409호	동학혁명백산 기념사업회
	15 고부관아 터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160번지 고부초등학교		사적 제293호	
	16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탑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618	위령탑 : 주탑과 보조탑(1994)		갑오농민혁명 계승사업회
	17 동학혁명모의탑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기념탑(1969), 사발통문 작성의 집(주택:안내판 설치)		
	18 말목장터	정읍시 이평면 두지리 면사무소 앞			고부농민봉기를 시작한 곳

도별	유적자 기념시설 명칭	소재지	기념시설 주요 내용	문화재 지정 사항	기타
19	예동마을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197-1	만석보과보선정비-1898		
20	만석보 유지비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17-1	만석보 유지비(1973), 만석보유지 기념비(1987), 만석보 詩碑(1999)	시도기념물 제33호	
21	황토재 전적지 갑오동학혁명 기념탑	정읍시 덕천군 하학리 산3	전봉준 동상과 사당, 기념관, 교육관, 광장, 주차장	사적 제295호	2004년 전시관 확장개관
22	태인(성황산) 전투 터	정읍시 태인면 대성리 1 성황산			
23	김개남 잡힌 곳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상중성			
24	전봉준선생 고택지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458-1		사적 제293호 (1981.11.28)	
25	전봉준 장군 묘역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1954년 문중에서 壇碑 건립,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기념사업시 가묘 조성		2004년 재정비
26	김개남 장군 묘역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지급실			1995년 후손 조성 가묘
27	손화중 장군 묘역	정읍시 상평동 산134			1996년 후손 조성 가묘
28	최경선 장군 묘역	정읍시 칠보면 축현리 산73-4	농민군 조형물, 사발통문석		현 위치보다 위쪽에서 1996년 이상
29	갑오동학농민혁명 100주년기념탑	정읍시 쌍암동 392	전봉준공원내 설치, 기념탑(1997), 동학농민혁명 영도자 동상(2002) 등		국립공원 내장산 입구
30	금구원평집회 터	김제시 금산면 용계리 원평			
31	김덕명 추모비와 위령각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김덕명 추모비, 위령각		1990년
32	구미란 전투터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원평리 산1,3 일대			무명농민군 봉분
33	전주입성 기념비	전주시 완산공원 내	기념비		1991년, 전라북도
34	전주성 西門 터	전주시 완산구 다가파출소 앞			전주성 입성지
35	동학혁명기념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동학혁명기념관		천도교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건립(1994-1995)
36	덕진공원 기념추모시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공원내	전봉준 선생상(1981), 김개남장군 추모비(1993), 손화중장군 추모비(1998),		

도별	유적지 기념시설 명칭	소재지	기념시설 주요 내용	문화재 지정 사항	기타
	37 용머리 고개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완산전투지
	38 삼례봉기 기념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비		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회, 1996년 건립
	39 삼례역참 터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곰말마을, 동부교회 부근			삼례집회 현장
	40 삼례봉기 역사광장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역사광장 : 추념의 장, 대동의 장, 선양의 장(2002)		전라북도, 완주군, 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회
	41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전적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 23-3	전적비		2000~2001년 완주군과 동학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에서 조성
	42 교통산성	남원시 산곡동		시도기념물 제9호	남원일대 농민군의 군사적 거점지로 산성에 표시만 되어 있음
	43 전봉준 장군 피체지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피노마을 276	피체유적비		회문산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피체지 유적 정비
전남 (5)	1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356	竹槍 모형의 기념탑	사적 제406호	동학군 황룡 전투 기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1994-97년)
	2 강진병영	강진군 성동리 일원, 병영초등학교			농민군 점령지
	3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장흥군 장흥읍 충렬리 산8	기념탑		1990~1992년, 석대들 전투 기념
	4 옥산리 전투 터	장흥군 관산면 옥산리			
	5 함평동학농민혁명 장경삼, 옥삼, 공삼선생 공적비	함평군 신광면 계천리	공적비(竹槍 모형)		1996년
충남 (9)	1 목천 세성산 전투터	천안시 성남면 화성리 산25			
	2 공주집회 터	공주시			
	3 이인 전투터	공주시 이인면			
	4 황화대 전투터	논산시 동화동 산1			
	5 웅치 전투터	공주시 신가동			
	6 효포 전투터	공주시 신가동			
	7 동학혁명군위령탑	공주시 금학동 산78-1 외		사적 제387호 (1994)	우금치 전적지
	8 송장배미	공주시 웅진동	표지석, 조형물 등		동학농민군 유골 수습

도별	유적자 기념시설 명칭	소재지	기념시설 주요 내용	문화재 지정 사항	기타
충북 (3)	9 갑오동학혁명군 추모탑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백화산 기슭	추모탑(1975), 태안지역 동학 전래비(2000)		홍주성 패전이후 집결지(백화산)
	1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6			복실전투 기념
	2 보은집회 터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경북 (9)	3 동학농민군 재기포 기념비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1997년, 천도교
	1 상주동학농민혁명 기념상	상주시 상주산업 대학 맞은편	기념상(1996)		상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2 소리마을 옛 터	상주시 공성면			
	3 강선보의 생가와 묘	상주시 화남면 입곡리			농민군 근거지
	4 김현영 고택 터	상주시 모서면			모서 농민군의 본거지
	5 상주 동학교당	상주시 은척면 우기리 728		교당본부 건물 5동 - 시도민속자료 제120호 (1999.12.30), 유물 (177종, 1084점) - 시도민속자료 제111호 (1995.3.31)	전시관
	6 해월 최시형 동상	경주시 동천동 황성공원	동상(1979)		최시형기념사업회, 천도교
	7 최제우 생가 유허비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유허비, 근처에 수운 최제우 묘역 있음		1971년 유허비 건립, 2013년 11월 현재 생가 복원사업 추진.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 추진, 2009년부터 동학문화축제 개최
	8 용담정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구미산	포덕문, 수도원, 용담교, 수운선생 동상 등		천도교 중앙총부
9 예천 동학농민군 생태장터 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碑(1999)		예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울산 경남 (2)	1 수운 최제우 유허지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639	수운선생 유허지비, 유허지 草家 및 草堂		2004년 준공
	2 고성산성과 동학혁명군위령탑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산13-1		기념물 제142호	1994년 건립

강원도 동학 관련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

번호	유적지 기념시설 명칭	소재지	기념시설 주요 내용	문화재 지정 사항	기타
1	인제 獄	인제군 인제읍			최제우의 가족이 구금되었던 곳
2	동경대전 간행터	인제군 남면 갑둔리			최시형의 주도로 『동경대전』을 간행한 곳
3	해월 최시형 은거지	인제군 남면 신남리 유목정			최시형 은거 및 포교활동지
4	양양 獄	양양군 양양군청			최제우의 장자 최세정이 옥사한 곳
5	조상골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동학군이 살던 곳
6	직동(끝은골)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천도교 교당이 있던 곳
7	해월 최시형 선생 피체지 추모비 및 표지석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송골	해월선생이 체포된 원진여 가옥터 비, 해월 최시형선생 기념비		최시형이 체포되었던 곳, 1990년 건립
8	미천리	정선군 동면 화암리			최시형이 머물렀던 곳
9	문두곡	정선군 남면 문곡리			최제우의 가족이 은신하였던 곳
10	무룡담	정선군 남면 낙동리			최시형이 49일 기도제를 했던 곳
11	적조암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갈래사			최시형이 49일간 기도를 드리고, 주지 哲首자와 문답을 나누었던 곳
12	소밀원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최제우의 가족이 은신하였던 곳
13	직동리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천도교사적지 표석		최시형이 동학을 포교하고 최제우의 가족이 머물던 곳
14	직동석굴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두리봉			최시형이 은신했던 곳. 산 중턱의 작은 동굴안에 은둔이 시설되어 있음.
15	동창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동학군이 점령했던 곳
16	장야촌(군업리)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동학군 전투지
17	동학혁명군위령탑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	위령탑(1977), 자작고개 노래비(2000)	도기념물 제25호	1998년 홍천동학혁명 추모사업회 구성
18	생곡리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동학군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
19	미약골	홍천군 서석면 미약골			동학군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
20	자운리	홍천군 내면 자운리			동학군 전투지
21	청두리	홍천군 내면 청두리			홍천 동학군 전투지
22	원당리	홍천군 내면 원당리			홍천 동학군 전투지
23	약수포	홍천군 내면 약수포			동학의 최후 전투지
24	사리평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동학군 전투지

번호	유적지 기념시설 명칭	소재지	기념시설 주요 내용	문화재 지정 사항	기타
25	후평리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동학군 전투지
26	애산리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녹도			정선지역의 가장 치열한 동학군 전투지, 동학군 처형지
27	선교장	강릉시 용강동			반동학군의 중심지
28	강릉여중	강릉시 용강동			차기석 등 동학군이 처형된 곳
29	강릉관아터	강릉시 용강동 구 강릉시청터			1894년 9월 4일 동학군이 점령한 곳
30	동학 사적 기념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기념비, 布德天下, 輔國安民 刻字碑		1997년 건립

강원도 지역에서 동학과 관련된 유적지는 대략 30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학 유적지는 포교지, 전투지 등을 일일이 조사하였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다른 시도에 수가 많은 것 뿐이고, 이러한 유적지에 기념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매우 적다.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강원도 동학군 최대 격전지에 위령탑이 건립되어 있고,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에 기념비, 그리고 원주 호저면 고산리 최시형 피체지에 표지석과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외에는 천도교에서 설치한 간략한 표지 시설만 있을 뿐 별다른 기념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제 갑둔리의 동경대전 간행터는 동학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중요한 유적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걸맞는 적절한 기념시설물 설치와 선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념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 될 수 있기에 이 자리에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다.

첫째, 최초로 인제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이 간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의미가 있으므로 그 각판소 장소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기념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념조형물 또는 기념탑을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상주의 동학교당과 유사한 시설물 설치를 함께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제에서의 동경대전은 김현수의 집에 각판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김현수 가옥을 복원하고 다른 기념시설물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념사업은 단편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곳은 현재 국방부 소유의 훈련장 부지이므로 토지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양

해 등이 가능한지도 함께 체크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곳은 동학의 지도부가 탄압을 피해 은거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교세를 확장해 가던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시설물 설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둘째, 인제 갑둔리 자체가 당시 동학 포교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각판소 터와는 별도로 갑둔리로 들어서는 입구에 동경대전 간행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석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44번 국도에서 갑둔리로 들어서는 다물교차로 지점에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표지 시설이 필요하다. 또 상남면에서 김부리를 통해 들어오는 진입구에도 마찬가지로 표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기념시설물의 활용 문제이다. 기념시설물은 기본적으로 동경대전 간행의 역사적 의미를 선양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인제의 다른 유적이나 명승, 문화시설 등과 연계되어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간행장소 기념시설에서 각 기념사업회, 천도교, 시민단체 등이 거국적으로 참여하는 적절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그 역사적 의미를 새기고 선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평소 지역의 향토교육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1880년 최초로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을 간행한 장소와 이곳에 대한 기념시설 정비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초로 동경대전을 간행할 당시 각판소를 설치하였던 김현수(김치운이라고도 함) 가옥의 터는 현재 인제군 남면 갑둔리 341번지이며, 이는 기존에 알려진 바이며, 최근 필자가 김현수의 종문(宗門)으로부터 채록한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설혹 증언자의 기억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30여년전 갑둔리 일대에서 행해진 천도교의 구술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이므로 구술조사 전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기록이 부재하여 다른 방법으로 김현수 가옥의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현재까지 획득된 정보에 의한 최종 판단은 상기의 장소라고 제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기념시설 설치에 앞서 이 사항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오늘 학술회의에서 좋은 의견이 충분히 나누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동학관련 유적지에 대한 기념시설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설치되어 있지만 인제 갑둔리의 동경대전 간행터는 동학의 포교활동과 관련한 주요 유적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걸맞는 적절한 기념시설물 설치와 선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념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는 별도의 정비계획이 필요한 사안이나 기본적으로 적절한 기념시설과 표지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기념행사를 통한 ‘민족종교 동학 최초의 경전 간행 장소’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선양은 물론 향토교육과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